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64621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015年 2月
敎育學碩士(漢文敎育)學位論文

고전소설의 여성영웅 비교연구

-『玉樓夢』·「朴氏傳」·「洪桂月傳」·「方翰林傳」을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Female Heroes of Korean Classical Novel
- Focusing on a Heroine of *Okrumong, Parkssijeon, Hongkyewoljeon* and *Banghanrimjeon* -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漢 文 敎 育 專 攻

李 京 德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고전소설의 여성영웅 비교연구

-『玉樓夢』·「朴氏傳」·「洪桂月傳」·「方翰林傳」을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Female Heroes of Korean Classical Novel

- Focusing on a Heroine of *Okrumong*, *Parkssijeon*, *Hongkyewoljeon* and *Banghanrimjeon* -

2015年 2月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漢 文 敎 育 專 攻

李 京 德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고전소설의 여성영웅 비교연구

-『玉樓夢』·「朴氏傳」·「洪桂月傳」·「方翰林傳」을 중심으로-

指 導 敎 授　鄭　吉　秀

이 論文을 敎育學碩士(漢文敎育)學位 請求論文으로 提出합니다.

2014年 10月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漢 文 敎 育 專 攻

李　京　德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李京德의 敎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합니다.

審 査 委 員 長 朝鮮大學校 敎 授 權 純 烈 印

審 査 委 員 朝鮮大學校 敎 授 韓 睿 嫄 印

審 査 委 員 朝鮮大學校 敎 授 鄭 吉 秀 印

2014年 12月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目　　次

ABSTRACT ····· ii

Ⅰ. 서　론 ····· 1
1. 연구 목적 ····· 1
2. 연구 방법 및 대상 ····· 7

Ⅱ. 전쟁 수행 과정에서의 영웅 형상 비교 ····· 9
1. 예지력과 도술 능력을 지닌 幕後 조력자 ····· 9
2. 남성보다 우월한 武勇을 지닌 여장군 ····· 22
3. 戰術 智略과 협상 능력을 지닌 여장군 ····· 32

Ⅲ. 가정에서의 여성 형상 비교 ····· 39
1. 애정의 조건과 부부관계 ····· 39
2. 여성의 正體性 ····· 57

Ⅳ. 결론 ····· 66

참 고 문 헌 ····· 69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Female Heroes of Korean Classical Novel

- Focusing on a Heroine of *Okrumong, Parkssijeon, Hongkyewoljeon* and *Banghanrimjeon* -

Lee Kyung-Duk
Adviser : Prof. Chung Kil-Soo Litt.D.
Major in Sino-Korean Literatur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the heroic illustrations and femaleness of the main characters in the following four heroine fictions - *Okrumong*, *Parkssijeon*, *Hongkyewoljeon*, and *Banghanrimjeon*. It compares the illustrations of each fiction's female character in terms of heroism and femaleness and analyzes the differences of the characters' personalities in the imagery developments. This study categorizes and particularly evaluates the female characters' heroic illustrations at wars and the feminine interpretations at home.

The most apparent common feature of the heroines in the four fictions is that the main characters have greater abilities than men. Those abilities are the foresight of interpreting dreams, constellation, secrets of nature and others in addition to Taoist magic skills in Parkssi of *Parkssijeon*, fencing skills in Hongkyewol of *Hongkyewoljeon*, the fencing and archery skills and disposition strategies of character Banggwanju of *Banghanrimjeon* and Gangnamhong of *Okrumong*. Another common feature is that even though those heroines go to battles dressed up like men, they are not punished, but rather earn greater positions as perceived they are better than men. However, there are differences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in preparation of wars. While learning martial arts, Parkssi of *Parkssijeon* is illustrated as a woman from Heaven, Banggwanju of *Banghanrimjeon* teaches herself the skills, Hongkyewol of *Hongkyewoljeon* and Gangnamhong of *Okrumong* master various martial arts from an ascetic. Another difference lies in military tactic resourcefulness and negotiation skills: Parkssi of *Parkssijeon* prepares for countermeasures with her foresight; Hongkyewol of *Hongkyewol jeon* aggressively demands the enemy's surrender; Banggwangju of *Banghanrim jeon* requests the surrender with a manifesto; and Gangnamhong of *Okrumong* suggests a stratagem to enemies to surrender.

The heroines of the four fictions commonly have some kinds of obstacles at home in terms of endearment and conjugal relations: Parkssi of *Parkssijeon* is identified as an 'ugly woman' Hongkyewol of *Hongkyewoljeon* is illustrated as 'a woman superior than men'; Banggwangju of *Banghanrimjeon* enters a homosexual marriage; and Gangnamhong of *Okrumong* has a reputation of a concubine. Furthermore, the four fictions have different relationship processes: An parents arranges Parkssi's marriage in *Parkssijeon*; emperor arranges Hongkyewol's marriage in *Hongkyewoljeon*; the parents of Banggwangju arrange a match; and Gangnamhong of *Okrumong* fell in love with hero and got married. Another apparent difference in the characters is their ways to overcome difficulties. Hongkyewol of *Hongkyewoljeon* make efforts to find her feminine identity, but Banggwangju of *Banghanrimjeon* does not search for her identity and chooses to end her life with a masculine identity. In *Okrumong* and *Parkssijeon*, Gangnamhong and Parkssi do not face an identity crisis.

The study analyzes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the following four fictions: *Okrumong*, *Parkssijeon*, *Hongkyewoljeon*, and *Banghanrimjeon*. This comparison shows a unique aspect of Gangnamhong's femaleness and heroism that illustrates the amplified ideal characteristics of other characters. Despite the limited scale of the analysis, this study provides a foundation work in the evaluation of heroine fictions.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Ⅰ. 서 론

1. 연구 목적

고전소설의 한 갈래인 영웅소설은 壬辰倭亂과 丙子胡亂 이후 창작되기 시작하여 조선후기 내내 큰 대중적 인기를 누렸다. 영웅소설은 영웅적 인물이 등장하여 영웅적 활약을 하는 작품 군을 지칭하는 소설 범주의 명칭이다.[1] 대부분의 작품은 壬辰倭亂과 丙子胡亂 같은 외적의 침략이나 간신의 반란으로 인해 전쟁이 자주 일어나는 상황에서 조정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영웅은 탁월한 武藝와 뛰어난 智略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국가적인 공훈을 세울 뿐만 아니라, 부모의 원수를 갚고 훼손된 가정을 회복시킨다는 점에서 주목 받는다. 당시 영웅소설이 발전해온 것은 임·병 양란이라는 사회적 충격과 함께 그 주인공이 남성에서 여성, 그리고 남성과 여성이 함께 등장한다는 점이다.

영웅소설의 유형 중 하나인 여성영웅소설은 주인공을 남성이 아닌 여성으로 두어 사건을 전개한다. 조선시대의 남성들은 사회적 활동을 통해 우월한 능력을 수행해 왔으나, 권위적인 性向으로 여성들의 사회적 활동은 억압해 왔다. 당시 사회와 남성들이 요구하는 여성은 한 가정의 내조자로서의 역할이다. 이처럼 남성과 여성의 역할 분담이 뚜렷했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더라도 表出할 수 없었다. 여성이 사회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 여성이라는 신분을 숨기고 남장을 통해 남성과 동등한 위치에서 立身揚名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시작한다. 여성영웅소설이 주목받게 되는 것은 여성이라는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어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발휘함과 동시에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이 주인공이 되고, 영웅이 된다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 파격적인 설정이 아닐 수 없다. 점차 후대로 오면서 여성의 역할은 남성의 背後者로부터 장군에 이르기까지 다양해졌다.

지금까지의 여성영웅소설로서 논자들에 의해 언급된 텍스트는 대략 40여 편에 달한다.[2] 이 중에서 본고의 연구 대상인 작품은 『玉樓夢』·「朴氏傳」·「洪桂月傳」·「方翰林傳」으로 각 작품별로 여주인공의 여성영웅 형상이 다양한 각도에서 전개되고

1) 서대석, 「영웅소설의 전개와 변모」, 『고소설사의 제 문제』, 집문당, 1993, 331쪽.
2) 전이정, 「여성영웅소설연구 : 서사 단위와 구성 원리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1쪽.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있어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기녀에서 장군에 이른 『玉樓夢』의 강남홍과 남성의 背後者 역할을 한 「朴氏傳」, 남성의 삶을 살다 결국 여성으로 복귀한 「洪桂月傳」, 여성의 삶을 거부하고 동성결혼을 한 「方翰林傳」등 이 네 작품에 두드러진 여성영웅 형상을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둔 작품의 여주인공은 『玉樓夢』의 강남홍이다. 『玉樓夢』의 강남홍은 여성-남장-여성으로 복귀한 여성영웅 인물이다. 「朴氏傳」의 박씨는 여성, 「洪桂月傳」의 홍계월은 여성-남장-여성, 「方翰林傳」의 방관주은 여성-남장-남성의 樣相을 띈 여성영웅 인물들이다. 이 세 작품의 여주인공들은 『玉樓夢』의 강남홍과 같은 양상 또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여주인공들이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과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어떠한 영웅성과 여성성으로 해결하지 그 형상을 비교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선정하였다. 『玉樓夢』의 강남홍이 전쟁에서 남성보다 뛰어난 武藝와 智略의 능력을 발휘하고, 가정에서 또한 내조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전형적인 여성영웅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최지연은 『玉樓夢』에 대한 기존 연구를 보면 작중 인물의 뛰어난 형상화를 언급하면서도 이를 깊이 있게 다룬 논문은 희박하다고 하였으며, 특별히 여성 인물들에 주목하여 그 형상과 의미를 천착한 연구 성과는 제출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때문에 여성 인물이 작품 내에서 어떤 모습으로 자리하여 상호간에 어떠한 관계와 의미를 형성하는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최지연은 여성 인물들을 각각 개성적인 유형과 전형적인 유형으로 나누어 작품의 내적 의미와 기능을 살피고, 개별적인 측면에서 강남홍, 벽성선, 일지련의 인물형상화에 대해 다루었다. 강남홍을 다양하고 개성적인 인물들 가운데에서도 단연 독보적인 빛을 발하며 여성영웅으로서의 남성적 면모가 강하게 작용하면서도 남성성에 상응하는 아름답고 여성적인 자질이며 '兩性的인 性向'이 적절하게 혼효된 새롭고 개성적인 인물이라고 하였다. 보통의 여성영웅들과는 달리 여성미가 부각된 새로운 여성영웅의 인물이라 보았으며, 『玉樓夢』의 여성 인물들이 지닌 개성적인 유형을 좀 더 입체적으로 규명하기 못했다는 한계점을 드러냈다.[3)]

신향화는 『玉樓夢』에서 강남홍의 공간적 구조에 따른 인물 형상, 신분 등의 변화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하여 19세기 사대부들이 지향하는 이상적인 여성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강남홍이 천한 관기에서 홍혼탈이라는 장수에 이르러 전쟁에서 활약하는 형상을 살피고, 「洪桂月傳」의 홍계월과는 재능과 무예 그리고 지략 등이 남

3) 최지연, 「<玉樓夢>의 여성 인물 형상화와 그 의미」, 『한국고전연구』 제10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4, 66~79쪽.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주인공보다 훨씬 출중하다는 면에서 아주 유사하고 하였다. 그러나 홍계월과 강남홍의 가부장에 대한 태도는 판이하다고 하였다. 가부장에 충성을 다하는 강남홍은 홍계월이 남장을 벗고 가정이라는 공간에 귀속될 때에 겪는 고민과 갈등 등을 겪지 않았다고 하였다.[4]

이병직은 『玉樓夢』에서의 여주인공인 강남홍와 남주인공인 양창곡이 신분적 장애 요인을 극복하는 결연과정을 통해, 강남홍의 영웅적 활약이 매우 대단하여 오히려 양창곡을 능가하고 있으며 여성영웅소설의 면모를 다분히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요소들은 『玉樓夢』에 나타나는 군담의 다양한 양상 및 여성영웅이라는 인물의 활약 등을 통해 이 작품의 대중적 성격을 보여주기 위한 일부분이었다.[5]

윤분희는 「박씨부인전」에서 박씨 부인은 다른 여성영웅소설의 주인공과 달리 선천적으로 탁월한 능력을 지녔으나, 추한 외모 속에 가려져 있는 특이한 인물이라고 하였다. 그의 영웅적인 능력을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으로 구분하여 논의하였다. 박씨 부인이 사적(가정적) 영역의 일을 통해 현모양처가 되고 추녀에서 미녀로 변신하는 것은 다른 여성영웅들이 공적(사회적) 영역으로 진출하기 위해 사용하는 변복, 남장, 변신 등과 같은 것으로 보았다. 배우자 이시백과 시비 계화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피화당'이라는 자신의 공간에서 그 영웅적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여성에게 요구되는 가정적, 사회적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였다고 하였다.[6]

조혜란은 「朴氏傳」에서 서사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두 요소는 박씨의 醜貌와 박씨와 용골대 형제가 '피화당'에서 벌인 전쟁담이라고 하였다. 피화당은 추모인 박씨가 남편 이시백의 박대를 피해 온 피난과 치유의 공간이며, 상상의 복수가 가능했던 전쟁으로부터 완벽하게 안전한 공간이라고 하였다. 피화당에서의 전쟁담을 통해 박씨가 신이한 능력을 갖추고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자기주장을 관철해 간 여성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박씨는 표현성 여성으로 순종형의 지고지순한 인내의 조선 여인상과는 거리가 있으며, 남성적 지배 질서가 갖는 문제를 폭로하면서 균열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하였다.[7]

곽정식은 「朴氏傳」에 나타난 여성의식을 조선조 가부장제 사회의 성별의식과 비교해서 그 성격이 어떻게 달라지고, 미처 극복하지 못한 한계점에 대해 살폈다. 탁

---

4) 신향화, 「<옥루몽> 소고 - 강남홍 인물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제30집, 2009, 355~363쪽.
5) 이병직, 「<옥루몽>의 작품 구조와 대중성」, 『국어국문학』 제31집, 국문학회, 1994, 49~56쪽.
6) 윤분희, 「<박씨전>의 여성 여웅성 연구 - 활자본 <박씨부인전>을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18,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1, 63~65쪽.
7) 조혜란, 「여성, 전쟁, 기억 그리고 <박씨전>」,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9집, 2004, 305쪽.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월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남편에 의해 소외된 객체, 他者로만 취급되었던 박씨가 추모에서 미색이 된 것을 계기로 일방적인 지배를 거부하고, 호란과 같은 국가적 위기를 맞아 막중한 국사에 참여하며 사회정치적 참여의지를 지녔다고 하였다. 박씨의 능력이 갖는 의미는 박씨가 미색이 되기 이전과 이후가 크게 다르고 하였다. 추모로 있는 동안 박씨가 지닌 능력을 기껏 자기 존재에 대한 소극적인 증명에 지나지 않았으나, 미색이 됨으로써 兩性에 대한 고정관념[8]과 남/녀의 이분법적 대립구도를 극복하는 것으로 적극적인 의의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9]

김명신은 「朴氏傳」의 박씨가 추악한 외모와 달리 다른 여성영웅들보다 월등하게 탁월한 능력을 지닌 존재라고 하였다. 다른 여성영웅들은 후천적인 노력, 즉 학습과 훈련에 의해 영웅적 능력을 획득하는 반면에 박씨는 태어날 때부터 영웅적 능력을 타고 난 영웅이라고 보았다. 다만 박씨의 '추비'한 용모에 의해 능력이 가려져 있다가 아름다운 얼굴로 변신한 이후에 재평가 받게 된 것이라고 하였다.[10]

조은희는 「洪桂月傳」을 통해 여성여웅소설에서 여성이 男裝을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나는 여성의식의 한계에 대해 다루었다. 性의 역할 분담이 분명했던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홍계월이 전통적 여성으로서의 삶이 아닌 자신의 의지를 실현시키는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여성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남장을 하며, 남성과 동등한 위치에서 학문도 연마하고 입신양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결혼이라는 새로운 대립이 시작되면서 당시의 남성중심의 性이데올로기에 정정당당하게 맞서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었다.[11]

김미령은 「洪桂月傳」의 내용 성격에 따라 어린 시절의 계월, 평국으로서 계월(남장 여성), 여자임이 탄로 나고 여성 계월로서의 본격적인 삶 등의 3단계로 서사 구조를 나누었다. 이 서사 구조를 중심으로 두드러진 서사적 특징은 남장 여자로서 영웅으로 등극하는 과정과 남장을 벗고 여성 영웅으로서의 삶에서 겪는 갈등 구도의 모습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12]

---

8) 여기서 兩性에 대한 고정관념의 극복이란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직분이 각기 그들의 능력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남성의 性的 美感을 전제로 미색이라는 신체적 조건을 지나치게 중시했다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곽정식, 「<박씨전>에 나타난 여성의 성격과 한계」, 『국어국문학』 제126집, 국어국문학회, 2000, 144쪽.)

9) 곽정식, 「<박씨전>에 나타난 여성의 성격과 한계」, 『국어국문학』 제126집, 국어국문학회, 2000, 143~144쪽.

10) 김명신, 「<好逑傳>과 <박씨전>의 여성영웅 연구」, 『중국소설논총』 제29집, 한국중국소설학회, 2009, 97쪽.

11) 조은희, 「<홍계월전>에 나타난 여성의식」, 『우리말글』 제22집, 우리말글학회, 2001, 203~214쪽.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장시광은 「方翰林傳」의 작품의 핵심 話素로 女化爲男과 同性結婚을 지닌 작품이라고 하였다. 여화위남은 여성영웅소설이 지닌 공통적인 화소이고, 동성결혼은 다른 여성영웅소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화소라고 하였다. 장시광은 「方翰林傳」의 방관주는 여자로서 당연히 갖추어야 할 규범 내지 행동 방식을 거부하고 남자의 행동 규범을 익히는 등의 행동은 남성 콤플렉스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 방관주에게 있어 동성결혼은 자신의 여성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좋은 엄호물이라고 표현하고, 그 동성결혼의 양상과 의미에 대해 다루었다.[13]

김혜정은 「方翰林傳」에서 나타나는 여성영웅소설의 변모 양상과 '女-女의 결연'의 배경과 의미에 대해 다루었다. '여-여의 결연'이라는 소재적 특이성이 영웅소설의 핵심적 구조라 할 수 있는 영웅의 일생구조의 대대적인 변모를 가져옴으로써 「方翰林傳」은 주인공이 요절하는 반 영웅적인 영웅소설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였다.[14]

김정녀는 「方翰林傳」은 영웅적 활약 면에서는 다른 여성 영웅과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餘他의 여성 영웅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은 뒤 어떤 형태로든 신분이 탄로나 남성과 결혼하고 여성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데 반해 방관주는 여성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다른 여성과의 결합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끝까지 추구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였다.[15]

양혜란은 「方翰林傳」의 男裝女性 방관주는 영웅소설 등에 나오는 남주인공들의 영웅적 활약상과 비교해 보더라도 차이나 열등한 부분이 전혀 없는 완벽한 인물로 형상화 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 男裝신분이 작품 후반부에 가서는 노출되고 다시 여성의 신분으로 환원되는 구성을 가진 여성영웅 유형의 작품들은 여성적, 가정적 갈등요인들이 작품 내적 상호갈등을 갖는 데 반해, 「方翰林傳」은 男裝新郞과의 (女)-(女)간 부부결연 및 男裝新郞의 男裝신분이 종신토록 유지된다는 독특한 작품이라고 하였다.[16]

이유경은 전쟁소재의 의미와 기능에 대해 살피고, 여성영웅 형상의 양상과 의미

---

12) 김미령, 「<홍계월전>의 여성의식 고찰」, 『한국언어문학』 제63집, 한국언어문학회, 2007, 182~183쪽.

13) 장시광, 「<방한림전>에 나타난 동성결혼의 의미」, 『국문학연구』 제6호, 국어국문학회, 2001, 264~268쪽.

14) 김혜정, 「<방한림전>연구 - 여성영웅소설의 변모 양상과 '女-女결연'의 소설적 전통을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제20집, 동양고전학회, 2004, 125~131쪽.

15) 김정녀, 「<방한림전>의 두 여성이 선택한 삶과 작품의 지향」, 『반교어문연구』 제21집, 반교어문학회, 2006, 229쪽.

16) 양혜란, 「고소설에 나타난 조선조 후기사회의 性차별의식 고찰 - <方翰林傳>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통권4집, 한국고전연구학회, 1998, 150~151쪽.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에 대해 살펴보았다. 「朴氏傳」·「洪桂月傳」·「方翰林傳」을 통해 전쟁이라는 위기상황과 가정에 처한 여성이 택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형상에 대해 설명하였다. 「朴氏傳」은 전란이라는 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인물로 뛰어난 능력을 지닌 박씨라는 여성을 내세움으로써 평소에 드러나지 않았던 여성의 잠재적인 힘과 가능성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을 드러냈다. 「洪桂月傳」의 홍계월은 전형적인 영웅의 일대기를 살아가는 인물로서 사회에서나 가정에서 여성이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기존의 가부장적 사회가 여성에게 요구하는 역할 규범에 대한 갈등과 남성과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요구되는 여러 제약에 대한 거부도 나타난다고 하였다. 「方翰林傳」은 방관주가 스스로 남장을 선택한 후에 학문과 무예를 닦아서 입신양명하며, 자신과 뜻이 맞는 여성과 결연을 맺어 일생 동안 공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한 여성 인물을 형상화 하였다.[17]

이윤경은 여성영웅소설의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 남장의 특징과 동기 등의 현상을 비교 하였다. 남성중심형에서 도술음조형의 형태를 나타내는 「朴氏傳」의 박씨는 남장의 양상을 나타내지 않고 남편인 이시백을 음조하거나 자신의 도술로 나라의 위기를 극복했다고 하였다. 여성이 사회적 활동을 용인하지 않았던 당시의 분위기를 거스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웅성을 드러냈다고 하였다. 여성중심형에서 여성우위형의 형상을 나타내는 「洪桂月傳」의 홍계월은 부모가 단명을 우려해 남장을 시켰으나, 어려서부터 영웅적 기상이 뛰어났으므로 단순히 타의적인 남장으로만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여성중심형에서 남성배제형의 형태를 나타내는 「方翰林傳」의 방관주는 처음부터 스스로 남복을 하고 평생을 남장의 모습으로 살아가며, 남장을 유지한 채 혼인하여 남자의 인생을 살며 자신이 지닌 영웅성을 평생에 걸쳐 발휘하였다고 하였다.[18]

전이정은 지금까지의 여성영웅소설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첫째, 여성영웅소설은 여성이 남성과도 같은 '武勇'을 펼치는 작품이다. 둘째, '영웅의 일대기'를 갖춘 '영웅소설'적 특성을 가진 소설이다. 셋째, '男服'을 입고 사회 진출을 하여 능력을 펼치는 소설이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여성영웅소설이 논의되었다고 하였다.[19]

이렇듯 지금까지의 여성영웅소설은 여성이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펼치기 위해 男裝을 하고, 남성보다 뛰어난 武勇을 펼치는 영웅의 일대기를 갖춘 소설로 많이

---

17) 이유경, 「고소설의 전쟁 소재와 여성영웅 형상」, 『여성문학연구』 제10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3, 140~148쪽.
18) 이윤경,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남장의 특징과 의미」, 『돈암어문학』 제13집, 돈암어문학회, 2000, 265~285쪽.
19) 전이정, 앞의 논문, 151쪽.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논의 되어왔다. 네 작품의 연구는 대부분 각 작품의 여주인공의 여성영웅 인물형상화나 여성의식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을 뿐, 그 이상의 여성영웅 형상에 대해 비교 분석한 논문은 많지 않았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 네 작품의 비교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앞의 신향화의 연구에서 『玉樓夢』의 강남홍과 「洪桂月傳」의 홍계월에 대해서만 비교 언급을 했을 뿐, 그 이상의 연구 성과는 없었다.

본고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玉樓夢』·「朴氏傳」·「洪桂月傳」·「方翰林傳」에 등장하는 여성영웅들의 성격을 파악하여 각 작품의 인물들이 어떤 모습으로 형상화되고 있는지, 인물의 형상화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주인공의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玉樓夢』의 강남홍을 중심에 두고 「朴氏傳」·「洪桂月傳」·「方翰林傳」의 여주인공들과 서로 대비되는 영웅적인 형상과 여성적인 형상을 살펴 여성영웅의 특징적 형상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2. 연구 방법 및 대상

본 연구는 여성영웅소설 『玉樓夢』·「朴氏傳」·「洪桂月傳」·「方翰林傳」의 네 작품을 선정하고, 네 작품 중에서도 『玉樓夢』의 강남홍을 논의의 중심에 두고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네 작품 중 『玉樓夢』의 강남홍을 중심에 둔 이유는 대부분의 여주인공은 명문가문의 무남독녀 출신으로 순탄한 삶을 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 영웅형상의 인물이다. 그에 반해 강남홍은 기녀라는 천한 신분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들을 극복하고, 뜻하지 않은 계기로 우연히 영웅이 된 인물이다. 기녀-첩-장군에 이르며,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영웅적인 모습과 가정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해결하는 여성적인 모습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영웅 형상을 크게 둘로 나눠 Ⅱ장에서는 전쟁 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영웅형상에 대해 비교할 것이며, Ⅲ장에서는 가정에서 나타나는 여성 형상에 대해 비교할 것이다. Ⅱ장의 1절에서는 예지력과 도술 능력을 지닌 幕後 조력자의 형상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 절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朴氏傳」의 박씨이다. 「朴氏傳」의 박씨는 남편 이시백의 幕後 조력자로써 뛰어난 예지력과 초현실적인 도술 능력의 모습을 보인다. 「朴氏傳」과 다른 세 작품의 여성영웅 형상 과정을 통해 여성영웅 형상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런 방식으로 Ⅱ장의 2절에서는 「洪桂月傳」의 홍계월이 남성보다 우월한 武勇을 보이며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여장군의 모습을 보이는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데 착안하여 네 작품의 여성영웅 형상을 비교한다. 3절에서는 「方翰林傳」의 방한림이 적국의 왕을 지혜롭고 명철한 언어로써 설득하여 인도적인 방법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모습에 주목하여 네 작품의 여성영웅 형상을 비교한다. 이러한 각 작품의 여주인공이 겪는 영웅형상 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영웅적인 성격에 대해 살펴보고, 인물들의 형상화 모습을 비교 분석하여 여성영웅 형상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유사점과 차이점이 어떠한 要因으로 발생하게 된 것인지에 대해 살펴 그 이해를 돕고자 한다.

Ⅲ장의 1절에서는 愛情에서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 남녀 주인공이 만남에서 결연까지 그리고 그 결연이 온전한 모습을 이루는 과정을 살펴 볼 것이다.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장애요소들을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는 남녀 주인공들의 태도와 성격을 살핀 뒤, 여주인공들의 여성적인 형상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2절에서는 男裝을 통해 남성의 역할에 익숙한 여성이 결혼을 통해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느낀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겪는 가정 내에서의 불화와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남녀 주인공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살피고, 여성의 역할을 수행하고 극복함으로써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성적인 형상을 비교하여 살펴볼 것이다.

이상의 비교 검토를 통해서 여성영웅 형상 과정에서 어떠한 대표적인 특징들을 가지는지 살피고, 『玉樓夢』의 강남홍만이 지닌 영웅성과 여성성의 특징이 한층 뚜렷하게 부각될 것으로 기대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Ⅱ. 전쟁 수행 과정에서의 영웅 형상 비교

이 장에서는 여주인공이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는 영웅 형상에 대해 살펴 볼 것이다. 『玉樓夢』·「朴氏傳」·「洪桂月傳」·「方翰林傳」의 네 작품은 모두 전쟁이라는 공통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각기 다른 武勇과 才操를 가진 여주인공이 등장한다. 『玉樓夢』의 강남홍과 「朴氏傳」·「洪桂月傳」·「方翰林傳」의 여주인공이 전쟁에 참여하게 된 계기와 전쟁에서 처한 상황과 位置에 대해 살피고, 그 전쟁들을 수행해 가는 과정에서 어떤 영웅적 형상으로 해결하는지 세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 작업을 통해 네 작품에 보이는 여주인공의 성격과 영웅적 형상의 유사점과 차이점이 좀 더 선명히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玉樓夢』의 강남홍과 「朴氏傳」·「洪桂月傳」·「方翰林傳」의 여주인공을 비교함으로써 강남홍만이 지닌 영웅적 형상을 좀 더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 예지력과 도술 능력을 지닌 幕後 조력자

1) 예지력

예지력은 여성영웅소설에서 심심찮게 나타나는 능력 중 하나이다. 남성들에 비해 항상 낮은 존재로 인식되어 오던 여성들이 예지력의 역할을 통해 사회 진출자로써의 입지를 다지게 된다. 작품들 중 예지력의 주된 인물은 「朴氏傳」에 등장하는 박씨이다. 「朴氏傳」을 시작으로 다른 세 작품의 여주인공의 예지력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박씨는 네 작품의 여주인공들 중 유일하게 사회에 직접 진출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表出하는 인물이다. 남편인 이시백의 幕後 조력자로써 뛰어난 예지력을 보이는 영웅적인 능력을 지닌 여성이다. 신이한 예지력의 暗示는 도술 능력의 발휘하게 되는 伏線역할을 하는 연결고리가 되기도 한다.

박씨의 예지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이때에 國運이 태평하여 人材를 보려 하시고 科擧를 뵈이시더라.
>
> 이때 박씨 한 꿈을 얻으니, 연못 가운데로부터 靑龍이 硯滴을 물고 박씨 있는 방으로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들어와 뵈거늘, 박씨가 꿈을 깨어 괴이히 여겨 연못가에 가보니, 전에 못 보던 연적이 놓였는지라. 가져다 계화를 시켜 서방님께 잠깐 들어오심을 청하니, 시백이 계화를 꾸짖으며,

"장부의 과거길에 요망한 계집이 무슨 일로 청하느냐?"

호령이 秋霜 같거늘, 계화가 이대로 여쭈니, 박씨가 탄식하고 연적을 내어

"場中에 쓰시라고 해라."

하는지라. 시백이 받아 가지고 장중에 들어가 글제를 보고, 연적을 기울여 먹을 갈아 一筆揮之하여 선장하였더니, 이윽고 銓頭官이 呼名하기를

"금반 壯元及第는 이시백이라."[20]

박씨가 꿈을 통해 얻은 백옥연적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그 연적으로 먹을 갈아 글을 지으면 장원급제할 것을 예견하는 내용이다. 박씨는 이시백에게 연적은 주기 위해 계화를 통해 불렀으나, 시백은 계화를 꾸짖고 박씨를 '요망한 계집'이라고 표현하였다. 그러나 박씨는 허탈하게 웃으며 과거시험 날에 쓰도록 계화에게 전하게 하였고, 연적을 본 이시백은 후회하며 박씨에게 사과하는 글을 남기고 과거 시험을 보러갔다. 박씨는 꿈 이라는 先見之明으로 남편 이시백에게 연적을 사용하게 하여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할 수 있도록 한다. 박씨가 이시백에게 '요망한 계집'이라는 下待를 받으면서도 연적을 끝까지 준 것은 자신이 직접 사회에 진출할 수 없는 위치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시백을 통해 그 성취를 이룬 것이다. 박씨는 공적 영역에의 진출이 여성에게 제한된 시대에서 사적 영역으로 제한된 자신의 삶을 공적 영역으로 확장시키기 위한 우회적인 방법으로 대리자 남성 내세우기를 전략적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다.[21] 이시백의 장원급제는 박씨가 공적 영역인 사회로 발돋움을 시작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甲子年(1624) 8월에 시백이 御命을 받자와 남경에 使臣갈 제, 林慶業을 데리고 남경에 들어갔더니, 마침 북방 胡國이 驄馬可達의 난을 만나 天子께 청병을 하였는지라. 천자가

"조선 사신으로 請兵將을 삼아 구원하라."

---

20) 「朴氏傳」, 김기현 역주, 『한국고전문학전집』15,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5, 171쪽. 이하 이 책을 「박씨전」의 대본으로 삼는다.

21) 윤분희, 「<박씨전>의 여성 여웅성 연구 - 활자본 <박씨부인전>을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18,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1, 54쪽.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하시는지라.

시백이 임경업과 더불어 총마가달을 쳐 破하고, 호국을 구원하여 돌아오니라. 천자가 아름답게 여기사 金銀寶貨를 많이 賞賜하시며 加資를 주시니, 시백과 경업이 皇恩을 축사하더라.

본국에 돌아오니, 상이 아름답게 여기사 시백으로 右議政을 삼으시고, 경업으로 都元帥를 제수하였더라.[22]

甲子年(1624) 8월, 박씨는 남편 이시백에게 南京에 사신으로 들어갈 때, 총명한 林慶業 장군을 데려가라고 당부한다. 이 후 이시백이 우승상에 오르게 되는 내용이다. 당시 胡國은 可達의 난을 당해 중국에 구원병을 청하던 시기였다. 황제는 마땅한 請兵將을 얻지 못한 채 시간만 흐르자, 조선 사신을 영접한 황자명이 조선 사신의 관상을 보니 만고 영웅의 기상이 있고 천지조화를 감추고 있으니 청병장으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자, 이시백과 임경업을 불러 그 기상을 살핀 후 청병장으로 봉하였다. 이에 이시백과 임경업은 천자의 명을 받고 함께 적군을 물리쳐 우승상과 도원수에 오르게 된다. 박씨는 이시백이 임경업 장군와 함께 남경에 동행하면 적국을 패배시키고 황제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였다. 이시백이 황제께 인정받고 직책을 얻은 것은 박씨가 공적 영역에서 인정받은 것과 동일시되는 것이다.

이때 박씨가 홀로 피화당에 앉아 천기를 살피더니, 우의정을 청하여

“모월 모일에 어떠한 미인이 찾을 것이니, 부디 피화당으로 보내소서.”

우상이

“그 어떤 여인이니이까?”

박씨가

“그때를 당하면 자연 알려니와, 그 여인이 필연 사랑에 머물고자 할 것이니, 만일 사랑에 머물게 하였다가는 대환을 당할 것이니, 부디 내 말을 명심하옵소서.”[23]

박씨가 피화당에서 별자리를 보고 胡國이 미모가 빼어난 시녀 기홍대를 자객으로 보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시백(우의정)에게 기홍대가 찾아오면 ‘避禍堂’으로 引導하라는 내용이다. 호왕이 조선을 칠 방법을 궁리하자, 호국 왕비가 “별자리

22) 「朴氏傳」, 187~189쪽.
23) 「朴氏傳」, 191쪽.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를 보니 조선에 신이한 인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선은 재물과 미인에 약하니 얼굴이 예쁜 젊은 자객을 시켜 신이한 인물을 없애면 됩니다."하여 기홍대를 보내게 된 것이다. 신이하게 또 박씨의 예지력은 적중하였다. 기홍대가 나타나자, 이시백은 박씨의 말대로 피화당으로 보내어 화를 면하게 되었다. 이시백은 박씨의 예견을 무의식적으로 신뢰하고 이행함으로써 여성인 박씨를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이때 박씨가 피화당에서 천기를 보고, 우상을 청하여 이르기를,
> "북방 호적이 금방 들어오는가 싶으니, 급히 탑전에 아뢰어 임경업을 內職으로 불러, 군사를 早發하여 막으소서."
> 우상이
> "북방 호적이 들어오면 북으로 올 것이니, 임경업은 북방을 지키는 의주부윤이라. 어찌 오는 길을 버리고 내직으로 부르리까?"
> 박부인이
> "호적인 북방으로 오지 아니하고 동으로 황해수를 건너 들어올 것이니, 바삐 임경업을 牌招하옵소서."
> 우상이 크게 놀라, 급히 들어가 부인의 말을 낱낱이 아뢰니, 상이 놀라사 만조백관이 다 驚惶하여 임경업을 패초하려 의논하시니.[24]

박씨가 천기를 살피던 중 호적이 동대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豫知하게 되자, 이시백으로부터 임금께 알리게 하여 적을 막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박씨의 예지력을 믿지 않던 金自點이 "조그만 계집이 쓸데없는 말로 조정을 놀라게 하며 민심을 어지럽히니 국법을 다스려야겠습니다."하여 이시백(우상) 또한 반대하지 못하였다. 그 후 丙子年 10월 동대문 방향에서 대포 소리가 나며 호적이 성문을 부수고 들어왔다. 임금은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였으나 용골대의 침입으로 결국 항복하였다. 위의 인용문은 이시백이 박씨의 예지력을 신뢰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임금'이라는 새로운 인물 또한 박씨를 간접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박씨의 예지력은 꿈을 시작으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여 별자리, 천기 등의 암시를 통해 사건의 배경에서 해결 방법까지의 형상을 보였다. 이러한 형상들은 여성인 박씨가 남성들에게 인정받고 신뢰를 쌓기 충분한 과정

24) 「朴氏傳」, 199~201쪽.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었으며, 또한 남성인 이시백을 통해 간접적인 사회진출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洪桂月傳」의 홍계월은 「朴氏傳」의 박씨와는 달리 직접 사회에 진출하여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인물이다. 홍계월은 박씨처럼 뛰어난 암시력은 없지만, 천문을 살피는 방법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예견하게 된다.

홍계월의 예지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원수 진중에 있어 적진 파할 묘책을 생각하더니 자연 마음이 산란하여 창밖에 나서서 천문을 살펴보니 紫微星이 神地를 떠나고 모든 별이 살기 등등하여 河水에 비치거늘 원수 대경하여 중군장을 불러 왈,
>
> "내 천기를 살펴보니 천자가 위태하심이 경각에 있는지라. 내 필마로 가려 하니 장군은 제장군졸을 거느려 진문을 굳이 닫고 나 돌아오기를 기다리라."[25]

홍계월은 적을 패하게 할 묘책을 생각하던 중 마음이 심란하여 천문을 바라보다 별의 살기를 느끼게 되자, 중군장에게 진문을 굳게 닫고 있을 것을 명령하는 내용이다. 대궐로 달려가 성안을 들여다보니 장안이 비어있었다. 그것은 도적이 들어와 대궐에 불을 지르고, 장안 사람들에게는 노략질을 심하게 하여 모두 도망간 상태였기 때문이다. 홍계월이 우연하게 천기를 살펴 예지력을 발휘하였지만, 늦게 발견한 천기로 인해 그 상황을 대처하지는 못하였다.

『玉樓夢』의 강남홍 또한 「洪桂月傳」의 홍계월과 마찬가지로 사회에 직접 진출하여 자신의 능력을 펼치는 인물이다. 강남홍은 박씨처럼 뛰어난 암시와 별자리, 천기 등을 살피는 방법과는 달리, 그 지역의 특성과 형상에 의심을 품게 되면서 일어날지 모르는 일에 대한 예견을 하게 된다.

강남홍의 예지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강남홍이 양창곡에게 조용히 아뢰었다.
>
> "이곳에 만약 간악한 사람이 불이라도 지르는 변고가 있을지 모르니 방심하면 안됩니다."

25) 「洪桂月傳」, 정병헌・이유경 엮음, 『한국의 여성영웅소설』, 태학사, 2000, 188쪽. 이하 이 책을 「홍계월전」의 대본으로 삼는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강남홍은 몇몇 하인들에게 몰래 짐을 옮기도록 하고 토산으로 올라갔다. 그녀가 양창곡을 모시고 토산으로 간 것을 객점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상태였다.

조금 뒤, 객점 동쪽 뗄감과 풀을 쌓아놓은 곳에서 불길이 일어나더니 삽시간에 사방으로 불빛이 하늘에 닿을 듯하여 유성처럼 빨리 번졌다.[26]

강남홍은 주변에 땔감이 많은 것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하여 물어보게 된다. 그러자 오랑캐와의 경계를 이룬 곳이라 전쟁이 나면 식량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땔감을 준비한다는 말을 듣게 된다. 강남홍이 앞으로 일어날 변고에 대해 예견하여 몰래 몸을 토산으로 피하는 내용이다. 몸을 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불길이 일어나더니 순식간에 사방에 펴져 주변이 화를 입게 되었지만, 강남홍의 일행은 그 화를 謀免하게 되었다. 이러한 강남홍의 예견은 자신과 타인의 안위를 걱정하여 나타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남성 양창곡의 안위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생겨난 예견이라고 볼 수 있다. 강남홍은 사회적 위치의 역할이 아닌 사랑의 감정에서 나온 촉과 같은 현상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네 작품의 예지력에 대해 살펴보았다. 「朴氏傳」의 박씨는 꿈, 별자리, 천기 등의 암시를 통해 예지력의 능력을 보였으며, 「洪桂月傳」의 홍계월은 천문을 통해, 『玉樓夢』의 강남홍은 지역의 특성과 형상을 살펴 예측에 가까운 예지력을 보였다. 이러한 예지력에서 박씨는 간접적인 사회적 진출을 표현한 것이고, 홍계월은 이미 진출된 사회적 위치에서의 역할을 다한 것이며, 강남홍은 사랑하는 남성을 보호하기 위해 발휘한 것이다. 그러나 「方翰林傳」의 방관주는 어떠한 예지력도 보이지 않았다.

2) 도술 능력

도술은 도를 닦아 여러 가지 조화를 부리는 요술이나 술법을 말한다. 여성영웅소설의 주인공들은 다양한 술법을 사용한다. 특히 네 작품 중 「朴氏傳」의 경우에는 도술 능력이 예지력을 바탕으로 펼쳐진다. 박씨의 도술 능력은 간접적인 영역의 사회 진출에서 직접적인 영역에까지도 영향이 미친다. 이시백의 幕後 조력자로서의 역할에서

26) “鸞城從容告于燕王曰: ‘此處似惑有奸人衝火之變, 不可放心.’…使數個蒼頭, 密移行具, 登其土山. 且說紅娘, 陪燕王徒步上山, 店人尙未覺知. 已而, 火起於店東紫草堆, 頃刻之間, 四面火光衝天, 疾如流星.”(『玉樓夢』, 활자본 『고전소설전집』6, 동국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77, 298쪽; 김풍기, 『옥루몽』3, 그린비, 2006, 82~83쪽. 이하 구활자본 『玉樓夢』을 원문 대본으로 삼고, 본문에서의 작품 인용은 김풍기 교수의 번역본을 대본으로 삼아 면수만 밝힌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도술 능력은 사회진출의 직접적인 영역까지 나아가는 형상을 한층 더 뚜렷하게 드러낸다. 그리고 예지력의 暗示가 도술 능력에서 어떤 중요한 伏線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박씨의 도술 능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그 여인이 눕거늘, 박씨도 또한 비껴 자는 체 하고 動靜을 살피더라. 이윽하여 그 여인이 잠이 깊이 드니, 두 눈을 뜨는데, 뜨는 눈에서 불덩어리가 내달아 방 안에 뒹굴면서 숨소리가 집안에 가득한지라
>
> 박씨가 일어나 그 행장을 펴보니 아무것도 없고, 다만 匕首 하나 있어 朱紅으로 새겼으되, '비연도'라 하였더라. 그 칼이 행장 밖에 나와 제비가 되어 방안에 날며 부인을 침범코자 하거늘, 박씨가 매운 재를 뿌리니 변화치 못하고 떨어지거늘, 부인이 그 칼을 들고 그 여인의 배 위에 앉으며, 크게 소리치기를,
>
> "기홍대야, 너는 잠을 깨어 나를 보라!"
>
> 하는 소리에 기홍대가 놀라 깨어, 눈을 떠보니 부인이 칼을 들고 배위에 앉았는데, 몸이 요동할 길이 없는지라.[27]

박씨가 기홍대의 비수를 보고 주문을 외워 영험함을 없앤 뒤, 기홍대를 꾸짖어 돌려보내는 내용이다. 이튿날 남편 이시백은 기홍대의 이야기를 임금께 알렸고, 박씨의 안목을 감탄하여 경명원부인 교지와 정3품 녹을 내렸다. 위의 인용문은 앞서 언급한 예지력의 암시를 통해 사건이 발생되고 도술로써 해결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복선의 역할이다. 박씨는 비수를 보고도 놀라지 않고 오히려 단숨에 제압하며, 기홍대를 소리쳐 깨우는 등 여성으로서의 연약한 모습이 아닌 대범하고 당돌한 남성의 모습을 보인다. 박씨가 여성으로서 처음으로 임금에게 벼슬을 받은 것은 사회진출자로써 인정받은 계기가 된 것이다.

> 율대가 100여 騎를 거느려 우상의 집을 범하여 인물을 수탐하더니, 내외가 적적하여 빈 집 같거늘, 차차 수탐하여 후원에 들어가 살펴보니, 온갖 기이한 수목이 좌우에 늘어서 무성하였는지라 율대가 고이히 여겨 자세히 살펴보니, 나무마다 용과 범이 수미를 응하며, 가지마다 뱀과 짐승이 되어 天地風雲을 이루며, 殺氣 가득하여 은은한 鼓角소리 들리는데, 그 가운데 무수한 사람들이 피난하였더라. 율대가 의기양양하여 피화당을 검칙하여 달려드니, 불의에 하늘이 어두워지며 黑雲이 자욱하고 雷聲霹靂이 진동하며,

27) 「朴氏傳」, 195~197쪽.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좌우 전후에 늘어섰던 나무들이 일시에 변하여 무수한 갑옷 입은 군사가 되어 점점 에워싸고, 가지와 잎이 변하여 기치 槍劍이 되어 霜雪 같으며, 喊聲소리가 천지진동하는지라. 율대가 대경하여 급히 내달아 도망치려 한즉, 벌써 칼같은 바위가 높기는 천여장이나 되어 앞을 가리워 겹겹이 둘러싸이니, 전혀 갈 길이 없는지라.[28]

용골대의 아우 용율대가 피화당을 被襲하자 박씨가 그동안 가꿔온 온갖 나무들과 가지들이 용과 범, 뱀과 짐승, 군사들이 되어 天地風雲을 이루며 용율대를 에워싸는 내용이다. 용율대는 魂魄이 되어 어찌할 바를 모르며 여종 계화를 통해 박씨에게 목숨을 구걸하지만, 결국 칼에 목을 베이게 된다. 박씨는 호국이 가달의 난을 당했을 때, 구해준 은혜를 모르고 우리나라를 圖謀하고자 하여 용서할 수 가 없었다. 여성인 박씨는 남성인 용율대가 목숨을 구걸하지만,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목을 베며 남성보다 더 단호하고 용감한 여성의 모습을 보였다.

문득 미친 바람이 일어나며 운무가 자욱하더라. 나무마다 무성하여 무수한 將卒이 되고, 金鼓喊聲은 천지진동하며, 용과 범이며 검은 새와 흰 잼이 수미를 相接하며 풍운을 토하고, 기치·창검이 별 같으며, 난데없는 신장이 甲胄를 입고 三尺劍을 들어 호병을 엄살하니, 뇌성벽력이 강산이 무너지는 듯하며, 胡陣 장졸들이 천지를 분별치 못하고, 주검이 丘山 같더라. 용골대 황겁하여 급히 錚을 쳐서 군사를 거두니 이윽고 천지가 명랑한지라. 용골대가 더욱 분기대발하여 칼을 들고 달려든즉, 명랑한 천지가 도로 자욱하며 무수한 神兵이 도로 엄살하니, 호지니 장졸이 감히 손을 용납지 못하더라.[29]

용골대는 자신의 아우 용율대가 피화당에서 계집에게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쫓아간다. 박씨는 또 여종 계화를 내세워 용울대에 이어 용골대와 맞서 싸우게 되는 내용이다. 박씨는 피화당의 나무들을 군사들로 변하게 하고, 부적을 사용하여 風雲變化之術로 불길의 풍향을 바꾸며 여종 계화를 도왔다. 박씨가 피화당에 나무를 심어 가꿔온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닌 호적은 막기 위한 豫見된 일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인용문 또한 앞의 예지력의 암시를 통해 도술 능력을 보여주는 복선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 임금은 앞의 김자점의 말 때문에 이러한 암시를 끝까지 듣지 않을 것을 후회하고, 박씨에게 折衝夫人이라는 직첩과 정1품 녹과 萬金을 상으로 내렸다. 박씨는 이시백과 계화라는 대리인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간접적으로 표

28) 「朴氏傳」, 205쪽.
29) 「朴氏傳」, 209쪽.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모든 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며 자신의 능력을 표출하고, 그 功을 직접 인정받는 여성영웅의 모습을 나타낸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洪桂月傳」의 홍계월은 어릴 적부터 부모에 의해 男裝을 하고 자랐으며, 한 자를 배우면 열 자를 아는 비상한 機才를 지닌 여성이다. 5세에 將仕郞의 亂으로 인해 부모를 잃고 여공에 의해 구해져 그의 아들 보국과 함께 同門受學하게 된다. 보국과 함께 곽도사에게 用兵之計와 다양한 術法을 배우게 되면서 남성으로서 入門하게 되고 평국이라는 이름으로 살게 된다. 홍계월은 남성인 보국 보다 學識을 비롯해 도술과 劍術 등에서 우월한 능력을 보인다.

홍계월(평국)의 도술 능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계월은 보국과 한가지로 글을 배울새 한 자를 가르치면 열자를 통하고 행동이 비상하니 도사 칭찬불이 왈,
>
> "하늘이 너를 내신 바는 明帝를 위함이라, 어찌 천하를 근심하리오."
>
> 용병지계와 각색 술법을 가르치니 검술과 지략이 금세에 당할 이 없더라. 세월이 여류하여 두 아이의 나이 십삼 세 되었는지라. 도사 두 아이를 불러 왈,
>
> "용병지사는 다 배웠으니 풍운변화지술을 배워라."
>
> 하며 책 한 권을 주거늘 받아 보니 이는 천고에 없는 술법이라. 평국과 보국이 주야불철하고 배우니, 평국은 삼삭 만에 무불통지하고 보국은 일년을 배워도 통치 못하니 도사 왈,
>
> "평국이 재주는 當世에 제일이라."[30]

홍계월과 보국은 곽도사에게 용병지계를 비롯한 다양한 술법과 風雲變化之術을 배우는 내용이다. 이러한 무용을 배우는 과정에서 둘의 실력은 시간이 갈수록 확연히 차이가 났다. 홍계월의 습득 능력에 놀란 곽도사는 평국의 재주를 '當世에 제일이라'라고 칭찬하였다. 이러한 홍계월의 모습은 연약한 여성이 남성의 역할을 해내지 못할 것이라는 편견을 없애고, 남성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받게 해준 기계가 된 것이다.

"너는 구상유취라. 어린 강아지가 맹호름 모름이라. 네 어찌 나를 당하리오. 내 칼을

30) 「洪桂月傳」, 163쪽.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받으라.”

하고 달려 들거늘 원수 웃고 장검을 높이 들고 발을 채쳐 달려들어 십여 합에 승부를 이루지 못하더니, 서달이 장대에서 보다가 악대 칼 빛이 점점 쇠진하고 평국의 검광은 노경 속에 번개같이 더욱 씩씩한지라. 급히 징을 쳐 군사를 거두어 원수 분함을 머금고 본진에 돌아오니 제장과 군졸들이 다 원수를 칭찬 왈,

“원수의 변화비술과 좌충우돌하는 법은 춘삼월 楊柳가지 바람 앞에 노니는 듯 추구월 초생달이 黑雲을 헤치는 듯 하더이다.”

하더라.[31]

홍계월이 곽도사에게 배운 다양한 술법과 풍운변화지술을 사용하는 내용이다. 평국이 웃으면서 장검으로 風雲變化之術을 사용하여 자유자재로 휘두르는 것은, 남성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자신보다 약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홍계월이 장검으로 남성을 희롱하듯 단숨에 제압하는 모습에서 남성보다 더 남성다운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홍계월이 여성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남성들은 홍계월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사회진출자로써 자신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인정하고 있다.

원수 갑옷 위에 검은 군복을 껴 입고 백사장에 나서며 수기를 높이 들고 말을 채쳐 보국의 진으로 횡행하니 차시 보국이 정령 적장인 줄 알고 皮甲上馬하여 달려들거늘 평국이 왕곽도사에게 배운 술법으로 경각에 대풍이 일어나고 흑운 안개 자욱하여 지척을 분변치 못할러라.[32]

홍계월이 風雲變化之術을 사용하여 보국을 제압하는 내용이다. 보국은 홍계월과 함께 용병지계와 술법을 배우고 전쟁에도 함께 출전한 군사이다. 이런 보국은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지 못하고 홍계월을 적으로 생각하여 싸우게 되지만, 홍계월은 보국을 알아보고 그 재주를 시험하기 위해 최소한의 술법으로 그를 상하지 않게 제압한다. 이렇듯 홍계월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술법을 사용해야할지 그 판단력과 집중력이 남성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玉樓夢』의 강남홍은 천한 기녀라는 신분으로 원치 않은 혼인을 앞두고 목숨을

31) 「洪桂月傳」, 168쪽.
32) 「洪桂月傳」, 194쪽.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바쳐 도망친다. 九死一生으로 살아나 이역 땅을 떠돌다 산속에 거처하게 되었다. 그 산속의 백운도사가 강남홍의 얼굴을 보고 훗날 부귀를 누릴 相이라며 술법을 전수해주겠다고 하였다.

강남홍의 도술 능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도사가 웃으며 말했다.
>
> "네가 속세를 이별하고 평생토록 산속에서 살아간다면 배운 게 소용이 없겠지만, 고국을 그리워하여 돌아가고자 한다면 몇 가지 술법과 학업을 배워서 돌아가는 수단으로 쓰도록 해라."
>
> (…) 그리고는 병법을 전수하며 말하였다.
>
> "六韜三略의 합치고 변화하는 수법과 八門九宮의 변화하는 방법은 모두 세상에 전해졌기 때문에 배우기가 오히려 어렵지 않다. 그러나 노부의 병법은 바로 先天秘書로, 배워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전수하지 않는다. 이 법은 모두 三災三生과 五行相剋의 이치에 부합하고 터럭만큼의 권모술수도 들어 있지 않으며, 바람과 구름을 부르는 조화의 오묘함과 귀신들은 부르고 항복시키는 술법이 지극히 정묘하니, 네가 평생토록 쓴다 해도 요사하고 怪誕하다는 말은 듣지 않을 것이다."
>
> 강남홍이 일일이 전수 받아서, 몇 달 만에 통달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33]

강남홍이 백운도사를 통해 술법과 학업을 배우는 내용이다. 강남홍은 六韜三略의 합치고 변화하는 수법과 八門九宮의 변화하는 방법을 비롯해 風雲變化之術도 몇 달 만에 병법과 술법을 통달하였다. 강남홍은 비록 여성이지만, 남성 못지않은 총명함과 용맹함으로 병법과 술법을 익히고, 남성으로서의 역할을 시작하는 계기가 된다.

> 홍혼탈이 다시 북을 울리며 흑기를 휘두르자 간방의 진문이 닫혔다. 부용검을 들어 五方을 가리키며 중얼중얼 술법을 펼치니, 홀연 맑은 바람 한 무리가 칼 끝에서 일어나더니 음산한 구름과 귀졸들이 봄눈 녹듯이 사라지면서 풀뿌리와 나뭇잎으로 변하여 공중에서 떨어지는 것이었다. 오랑캐 장수 세 사람이 크게 놀라 한 마리 말과 창 한 자루

33) "道士笑曰: '娘欲辭人間而, 終身山中, 所學無所用, 若有故國之變, 欲其歸去, 學數件術業, 以作歸國之階.'…乃以兵法 傳受曰: '六韜三略合變之手段, 八門九宮變化之方法, 皆傳於世, 學之猶不難. 至於老夫之兵法, 卽先天秘書, 若非其人則不傳. 其法全是, 三災三生, 五行相剋, 無一豪權術, 風雲造化之妙, 役鬼降魔之術法, 至精至妙, 汝平生需用, 不聞妖誕之名.' 紅一一受敎, 數朔之間, 無不慣通."(『玉樓夢』, 141쪽; 『옥루몽』2, 7~8쪽.)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로 명나라 군중을 헤매고 다니면서 사방으로 좌충우돌하였다. 홍혼탈은 진영 위에 높이 앉아 부용검을 들어 남방을 가리켜 三离火를 일으키니 불빛이 하늘에 닿았으며, 북방을 가리켜 六坎水를 솟구쳐 오르게 하자 큰 바다가 넘실넘실하였고, 동방과 서방을 가리키니 우레와 비가 크게 일어나며 큰 못이 앞에 닥쳤다. 오랑캐 장수 세 사람은 정신이 어지러워 어디로 가야할지 몰랐다.[34]

강남홍(홍혼탈)이 백운도사에게 배운 風雲變化之術를 다양하게 활용하여 오랑캐를 제압하는 내용이다. 강남홍은 오랑캐의 장수 세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검과 술법을 자유롭게 사용하여 단 번에 제압하였다. 오히려 오랑캐 장수들이 강남홍의 술법에 놀라 좌충우돌한 모습을 보였다. 여성 혼자 남성 셋을 두려워하지 않고 조롱하듯 검과 술법을 사용하였다. 강남홍이 사용한 술법은 화려하고 혼란스러우면서, 그 모양새가 整然되어 있는 모습이었다.

홍혼탈 역시 엄지만 한 작은 사람으로 변하여 터럭만 한 부용검을 휘두르며 축융왕의 칼날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았다. 축융왕이 다시 변하자 칼과 사람은 갑자기 온데간데없어지고 한 줄기 검은 기운으로 바뀌면서 하늘 끝에 닿았다. 홍혼탈 역시 다시 한 줄기 푸른 기운이 되어, 푸른색과 검은색이 허공에서 서로 만났다. 쨍그랑거리는 칼 소리만 들리면서 구름 속 하늘에서 서로 싸울 뿐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검은 기운이 흰 원숭이로 변하여 달아나자, 푸른 기운은 탄환이 되어 흰 원숭이를 추격했다. 원숭이가 뱀이 되어 바위틈으로 달아나자 탄환은 벼락으로 변하여 그 바위를 쳤다. 뱀이 검은 기운을 토해내어 지척을 분간하기 힘들게 하자 벽은 큰 바람으로 변하여 구름과 안개를 불어서 흩어놓아 천지가 밝고 환하게 되면서 사악한 기운이 하나도 보이지 않게 되었다. 잠시 후 홍혼탈이 장막 안에서 나왔다.[35]

강남홍이 둔갑술을 사용하여 축융왕과 대적하는 내용이다. 강남홍은 작은 사람에

34) “紅司馬更鳴鼓而揮黑氣, 閉間方陣門. 擧芙蓉劒而向五方, 暗暗作法, 忽然一陣淸風, 從劒頭而起, 陰雲鬼兵, 消似春雪, 變爲草根木葉而落空中. 蠻將三人, 大驚匹馬單鎗, 彷徨軍中, 衝突四方. 紅司馬高坐陣上, 擧芙蓉劒而指南, 起三离火而, 火光沖天, 指北湧六坎水而, 大海茫茫, 指東西雷雨大作, 大澤當前. 三將精神迷亂, 莫知所之.”(『玉樓夢』, 172쪽; 『옥루몽』2, 72~73쪽.)

35) “紅司馬亦變作如塵小人, 揮如豪芙蓉劒, 凝於祝融之劒刃而不移. 祝融更爲變身, 人與劒忽無去處, 化作一條默記, 接天際. 紅司馬更作一條靑氣, 靑黑兩氣, 相接於半空, 但聞鏘然劒聲, 相擊於雲霄. 忽然黑氣, 變爲白猿而走, 靑氣變爲彈丸, 追白猿. 猿變爲蛇, 入於巖隙, 彈丸變爲霹靂, 擊破其岩. 蛇吐黑氣, 不辨咫尺, 霹靂變爲大風, 吹散雲霧, 天地明朗, 邪氣一無所見. 已而, 紅司馬 笑而出自帳中.”(『玉樓夢』, 174쪽; 『옥루몽』2, 77쪽.)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서 푸른 기운이 되고, 푸른 기운에서 탄환으로 변하고, 탄환에서 벼락 등으로 변하며 남성과 동일한 도술 능력을 발휘한다. 남성에게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여 남성을 사로잡음으로써 여성이 나약한 존재가 아닌, 남성보다 더 뛰어난 무용을 지니고 활용할 수 있는 강인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홍혼탈이 깜짝 놀라며 말했다.
> "오늘 저 요물을 잡지 않으면 후환이 적지 않겠구나."
> 그녀는 부용검을 들어 공중을 가리키면서 몰래 진언을 외었다. 그러자 그 잎사귀들이 어지러이 땅에 떨어지면서 다시는 다른 모습으로 변신하지 못하고, 그전 모습대로의 소보살이 황망히 도망치는 것이었다. 홍혼탈이 대군은 재촉하여 급히 포위하고 사로잡으려 하였다. 그러자 소보살이 다시 백여 개의 보살로 변하였다. 모든 장수와 병사들은 눈이 어질어질하여 잡을 방도를 몰랐다. 홍혼탈이 즉시 주머니 안에 넣어두었던 백운도사의 菩提珠를 꺼내어 공중에 던졌다. 그 구슬들이 108개의 금테로 변하더니 백여 개의 소보살을 씌웠다. 그러자 107개의 소보살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하나의 소보살만이 머리를 들고 땅에 구르면서 슬프게 목숨을 구하는 것이었다.[36]

강남홍이 先天遁甲術을 사용하여 적군을 대적하며 이기는 내용이다. 앞에서 언급한 강남홍의 둔갑술은 자신이 직접 여러 단계로 변신하여 적과 싸웠지만, 이번 둔갑술은 자신이 아닌 잎사귀와 菩提珠라는 사물을 이용하여 적군을 대적하며 가볍게 제압하고 이기는 모습을 보였다. 강남홍은 몸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사물들은 사용할 줄 하는 융통성과 다양한 술법을 지닌 여성이다.

지금까지 네 작품의 도술 능력에 대해 살펴보았다. 「朴氏傳」의 박씨는 風雲變化之術과 그 밖의 다양한 도술 능력을 보였다. 그리고 「洪桂月傳」의 홍계월은 풍운변화지술을 보였으며, 『玉樓夢』의 강남홍은 풍운변화지술과 둔갑술을 비롯한 다양한 술법의 도술 능력을 보였다. 박씨와 홍계월 그리고 강남홍은 풍운변화지술이라는 술법을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方翰林傳」의 방관주는 어떠한 도술 능력도 보이지 않았다.

---

36) "紅司馬大驚曰: '今日若不擒妖物, 後患不少.' 擧芙蓉劍而指之空中, 暗誦眞信. 其葉紛紛落地, 更不變形, 依舊爲一個菩薩, 蒼黃欲走. 元帥催促大軍, 急圍欲捕, 菩薩更變爲百餘菩薩, 諸將軍卒 眼目眩亂, 不知其捕捉之道. 元帥卽出囊中所藏白雲道士菩提珠, 投之空中, 百八菩提珠, 變百八金箍兒, 蒙百餘個小菩薩. 百七個菩薩, 不知去處, 一個小菩薩, 扶首而轉於地上, 哀求饒命."(『玉樓夢』, 251~252쪽; 『옥루몽』2, 231쪽.)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남성보다 우월한 武勇을 지닌 여장군

여성영웅소설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뛰어난 武勇을 보이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다. 남성들에게 순종적인 여성이 그들보다 뛰어난 용맹과 무예로 그들을 대적하고 이김으로써 더 높은 입지와 존경을 얻게 된다. 「洪桂月傳」의 홍계월은 남성보다 더 뛰어난 武勇 실력을 보여주고, 더 높은 위치에서 남성들을 호령하게 되며 칭송받게 된다. 「洪桂月傳」을 시작으로 다른 세 작품의 여주인공의 武勇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洪桂月傳」의 홍계월은 어릴 적부터 부모에 의해 남복을 입으며 남성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5세에 將仕郎의 亂으로 인해 부모와 이별하고 여공의 도움으로 그의 아들 보국과 함께 同門修學하면서 홍계월이 아닌 평국의 삶을 시작하며 남성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홍계월이 가진 능력은 남성인 보국보다 훨씬 뛰어났으면 훗날 둘은 전쟁에서 상하관계를 이루게 된다. 홍계월은 서관과 서달의 亂, 吳·楚 兩왕의 亂의 전쟁에서 大元帥로, 보국은 大司馬中軍大將의 직위로 출전한다. 이처럼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직위를 인정받는 것은 남성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쟁에서 남성인 보국을 구하고, 승리로 이끄는 과정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한 武勇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홍계월(평국)의 武勇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중군장 보국이 아뢰되,
> “명일은 소장이 나가 악대의 머리를 베어 휘하에 바치리이다”
> 원수 만류하여 왈,
> “악대는 범상치 아니한 장수니 중군은 물러 있으라.”
> 하니 종시 듣지 아니하고 간청하거늘 원수 왈.
> “중국이 공을 세우고자 하거니와 만일 여의치 못하면 군법으로 시행하리라.”
> (…) 원수 대질 왈.
> “중군을 들으라. 내만류하되 자원하여 다짐을 두고 출전하더니 적장의 꾀에 빠져 대국에 수치함을 보이니 내 구하지 아니 하려다가 더러운 도적의 손에 아니 죽이고 내 법으로 죽여 죄장을 效則코자 함이니 죽기를 슬퍼 말라.”[37]

37) 「洪桂月傳」, 168～169쪽.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서관과 서달의 난에서 남성인 보국이 자신의 공을 세우기 위해 여성인 홍계월(원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적군을 물리치려다, 오히려 적의 꾀에 빠져 위기에 처하게 되고, 그런 보국을 홍계월이 구해주는 내용이다. 홍계월은 보국을 군법으로 시행하려고 했으나, 보국이 한 번의 勝敗는 兵家常事라고 말하며 叩頭謝罪로 용서를 구하자, 남성이 목숨을 구걸하는 모습을 보고 속으로 웃으며 용서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시대상 남성에게 順從하는 나약한 존재의 여성이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니었다. 남장을 하고 남성보다 더 출중한 실력을 겸비한 여성만이 가능할 일이기 때문에, 홍계월은 보국의 모습을 보고 즐거워 할 수밖에 없었다. 홍계월의 이러한 행동은 더 이상 남성에게 순종하는 나약한 존재의 여성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원수 필마 단창으로 짓쳐 들어갈새 칼빛이 번개같고 주검이 丘山 같은지라. 원수 한 칼로 십여만 대병을 파하고 서달 등을 찾으라 하며 살펴보니 약간 남은 군사가 다 달아나며 우는 말이,

"서달아 너는 도망하여 살려 하고 우리는 외로운 고혼이 되라 하고 도망하느냐."

(…) 원수 벽파도에 다다르매 배를 강변에 매고 진을 쳐며 호령 왈,

"서달 등을 바삐 잡으라."

하니 제장이 일시에 고함하고 벽파도를 둘러싸니 서달이 할 일 없어 자결코자 하더니 원수의 장졸에게 잡혔는지라. 원수 장대에 높이 앉아 서달 등을 대하에 꿇리고 호령 왈,

"이 도적을 차례로 원문 밖에 내어 베라."[38]

홍계월의 검은 번개같이 빨라 십여만의 대병을 순식간에 찔러 죽이고, 적장인 서달이 도망가자 재빠르게 쫓아가 진을 친 후, 자결하려는 서달을 포위하여 목을 베는 내용이다. 홍계월은 도망가는 적장을 놓치지 않고 쫓아가 죽이는 끈질긴 모습을 보인다. 적에게는 절대 아량을 베풀지 않으며 결단력 있게 처리한다. 검을 사용하는 솜씨는 십여만의 군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매우 빠르며 정확하였다.

보국이 원수 보기를 부끄러워하거늘 원수 보국을 꾸짖어 왈,

"저러하고 평일에 남자로다 하고 나를 업수이 여기더니 이제도 그리할까?"

하며 무수히 조롱하더라.

이때 吳楚 兩王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38) 「洪桂月傳」, 172~173쪽.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평국의 용맹을 보니 옛날 조자룡이라도 당치 못할지라. 어찌 대적하며 명장 구덕지를 죽였으니 이제 누구로 더불어 대사를 도모하리오. 이제는 우리 양국이 평국의 손에 망하리로다."[39]

홍계월은 보국과 오·초 양왕의 난의 전쟁에서도 서관과 서달의 난의 형상을 보였다. 두 전쟁에서 모두 劍을 사용하여 적의 무리와 적장의 머리를 베고 승리를 이루어내는 동시에 남성인 보국을 위기에서 구해주는 내용이다. 다만 서관과 서달의 난과는 달리 홍계월이 여성임이 탄로 난 후, 천자에게 그 능력을 인정받아 여성으로서 출전하게 된 전쟁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적장에게 패한 보국은 홍계월을 보기 부끄러워하고, 홍계월은 그런 보국을 조롱하는 내용이다. 홍계월은 大元帥로, 보국은 大司馬中軍大將의 직위로 출전하면서 여성이 더 높은 직책을 맡은 것은, 남성보다 더 뛰어난 勇猛과 武勇을 겸비하고 전쟁에서의 판단력이 더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오·초 양왕 또한 홍계월의 용맹을 조자룡이 와도 당하지 못할 것이라며, 홍계월의 武勇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항상 남성이 상, 여성이 하인 상하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의 상하관계가 동등해지거나 뒤바뀌면서 여성이 더 이상 남성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시켜준다.

「朴氏傳」의 박씨는 예지력과 도술에는 능하지만, 武勇에는 陳法이 있으며 그 이상의 武藝를 찾아보기는 힘들다.

박씨의 陣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원수가 나무를 보고 용골대를 만류하기를,

"그대는 분한 마음을 잠깐 참으라. 저 나무를 보니 옛날 제갈공명의 八陣圖法이니, 輕忽히 말라."

(…) 김자점이 황겁하여 방포일성에 군사를 몰아 피화당을 에워싸니, 문득 八門이 변하여 100여 길 함정이 되는지라.[40]

박씨가 八陣圖法의 陣法을 사용하여 적을 혼란에 빠뜨려 제압하는 내용이다. 자신의 영역인 피화당에서 적군의 포로가 된 김자점이 군사를 몰아 피화당을 에워싸자, 八陣圖法을 사용하여 적을 함정에 빠뜨린다. 이처럼 박씨는 항상 자신이 직접

39) 「洪桂月傳」, 187쪽.
40) 「朴氏傳」, 209~211쪽.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참여하지 않고 대리인과 사물들을 이용하여 간접적인 자신의 능력을 보여준다. 이러한 간접적인 능력의 功은 항상 박씨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方翰林傳」의 방관주는 부모에 의해 男服을 입고 자라다, 4세가 되던 해부터 스스로 女服을 거부하고 男服을 입기 시작하였다. 그런 방관주의 뜻을 받아들인 부부는 女功을 가르치지 않고, 오직 시 짓는 법과 글 쓰는 법을 가르쳤다. 방관주가 8세가 되던 해 부모를 여의고, 그 후 책에 몰두하기 시작하여 兵書를 읽고 武藝도 스스로 터득하였다. 방관주는 자신의 뜻에 의해 남장을 하고 남성으로 살아가는 여성이다.

방관주의 劍術과 陣法, 그리고 활쏘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길을 행하여 오랑캐 땅에 이르러 陣을 베풀었다. 먼저 오랑캐 왕에게 檄書를 전하니 이에 오랑캐 왕이 뭇 신화와 함께 격서를 보았다.
>
> (…) 오랑캐 왕이 크게 노하여 이에 병사를 몰아 싸우기를 청하였다. 오랑캐 장수가 비록 많으나 어찌 방 원수의 용병술을 당하리오? 호통하고 한번 싸우자, 오랑캐 군이 대패하여 주검이 산 같고 피가 흘러 시내가 되었다.[41]

방관주(원수)가 자원 출전하면서 임금에게 받은 尙方劍을 사용하여 오랑캐를 무찌르는 내용이다. 방관주는 싸움으로 인해 군사들이 다치는 것을 원하지 않아하며 진법으로써 그 위엄을 보인 뒤 항복하라는 내용의 격서를 보낸다. 그러나 그 격서를 본 오랑캐 왕과 신하들은 격분하여 싸움을 시작하지만, 방관주의 용병술을 당해내지 못한 오랑캐의 군사들은 피가 시내를 이룰 만큼 크게 패하고 만다. 방관주는 스스로 병서와 무예를 익혔지만, 受學을 통해 익힌 병사들 보다 더 출중하였다.

> 오랑캐 왕이 큰 소리를 지르고서 꽹과리와 징을 쳐 군사를 지휘해 한꺼번에 진을 치니 원수가 냉소하고 말하였다.
>
> “이는 八卦陣이니 치기 쉬우리라. 내가 진을 칠 것이니 보라.”
>
> 한꺼번에 포를 쏘고 진을 치니 진법이 기이하여 어디로부터 들고 나는지 모를 정도였다. 원수가 말하였다.

---

41) 「方翰林傳」, 장시광 옮김, 이담북스, 2010, 56~57쪽. 이하 이 책을 「방한림전」의 대본으로 삼는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 진 이름을 아느냐?"

오랑캐 왕이 한참을 보다가 말하였다.

"이는 天文朱雀陣이니 어찌 모르겠는가?"

원수가 웃으며 말하였다.

"네가 이 진을 다 알겠느냐?

말을 마치자, 오랑캐 왕의 뒤에서 한 女將이 내달리며 말하였다.

"오늘 방 원수를 죽여 원한을 갚으리라."

일시에 오랑캐 왕과 합세하니 두 진이 승부를 내지 못하였다. 원수가 한 화살로 달녀의 가슴을 맞히니 달녀가 한 소리를 지르고 떨어져 죽었다. 오랑캐 왕은 달녀가 죽는 것을 보고 급히 말을 돌려 달아나려 하였다.[42]

방관주가 陣法과 활쏘기의 무예로 오랑캐를 무찌르고 항복을 받아내는 내용이다. 방관주는 오랑캐 왕이 八卦陣을 펼치니, 하기 쉬운 진이라며 天文朱雀陣의 기이한 진법으로 답하였다. 방관주의 진법에는 天文朱雀陣이 있으나 그 외에 더 많은 진법을 驅使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 이유는 첫째, 오랑캐의 왕이 펼친 八卦陣을 알아본 것이다. 이것은 다양한 진법을 익히고 있음을 알려준다. 둘째, 인용문에서 방관주가 '네가 이 진을 다 알겠느냐?'라는 말 중 '다'라는 표현이 內包的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天文朱雀陣에는 다양한 진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玉樓夢』의 강남홍은 밤에는 백운도사에게 兵法과 劍法을 배우고, 낮에는 산에 올라가 劍術과 다양한 陣法을 구사하였다. 강남홍의 武勇에는 劍術, 陣法, 활쏘기 등이 있으며, 그 사용에 있어서는 남성보다 더 복잡하고 화려한 형상을 보인다.

강남홍의 劍術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뇌천풍이 분기탱천하여 도끼를 휘두르며 강남홍에게 덤벼들었지만, 그녀는 태연히 웃으면 부용검을 집고 서서 꼼짝도 않고 있었다. 뇌천풍은 더욱 화가 나서 한 소리 크게 지르면 힘을 다하여 도끼를 휘둘러 강남홍을 공격하였다. 순간 강남홍이 쌍검을 휘두르며 허공에 몸을 솟구쳤다. 뇌천풍이 허공을 쳐다보면서 급히 도끼를 거두어들이고자 하였지만, 갑자기 쨍그랑 하는 소리가 머리 위에서 들렸다. 날아온 칼이 공중에서 떨어지며 머리 위의 투구를 쳐서 깨뜨린 것이었다. 뇌천풍이 황망하여 몸을 뒤틀면서 말에서

42) 「方翰林傳」, 60쪽.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떨어졌다. 그러나 강남홍은 두 번 다시 돌아보지 않고 칼을 거두어 들였다.[43]

강남홍은 적인 뇌천풍이 도끼를 휘둘러도 겁먹지 않고 오히려 웃음으로 답변하고 꼼짝하지 않은 채 적을 조롱하고 있다. 쌍검을 사용하여 몸을 허공에 가르며 적의 투구를 깨뜨려 적을 당황하게 하여 물러나게 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흥분하지 않고 침작하게 대응하고 오히려 적을 더 흥분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다. 강남홍은 남성보다 더 높은 수위의 검술을 선보이며, 남성에게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결단 내리는 여성이다.

> 홍혼탈은 들고 있던 쌍검을 어지러이 휘두르며 일진일퇴를 거듭하니, 이는 '老龍弄珠' 수법이었다. 일지련도 홍혼탈의 검술이 법도가 있어서 가볍게 대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쌍창을 휘두르면서 곧바로 혼홍탈에게 덤벼드니, 이는 '秋鶻下山'수법이었다. 그러자 홍혼탈은 '燕蹴飛花'수법을 써서, 왼손의 칼을 공중에 던지고 오른손의 칼로 일지련을 겨누면서 말을 돌려 달아났다. 일지련은 '獼猴偸果'수법으로, 오른손의 창으로 칼을 막고 왼손의 창으로 홍혼탈을 공격했다. 홍혼탈은 '猛虎摺尾'수법으로 몸을 눕혀 창을 피하면서 양 손의 칼을 공중에 던지고 말을 달려 앞으로 나아갔다. 일지련은 '白猿逐鹿' 수법으로 말 위에서 몸을 솟구치면서 쌍창으로 쌍검을 막고 말을 달려 홍혼탈을 향해 나아갔다. 홍혼탈은 말머리를 돌리고 오른손의 칼을 공중에 견주고 왼손의 칼로 일지련을 치려고 '獅子搏兎' 법을 썼다. 일지련은 쌍창으로 견주면서 일진일퇴를 하여 '蜘蛛縛蝶'수법을 썼다.[44]

강남홍(홍혼탈)이 여성인 일지련과 대적하는 내용이다. 강남홍은 老龍弄珠, 燕蹴飛花, 猛虎摺尾, 獅子搏兎 등의 다양한 수법으로 쌍검을 사용하는데, 한 손의 검으로는 상대를 혼란시키고, 다른 한 손의 검으로는 상대를 제압한다. 대적의 상대는 남성이 아닌 여성 일지련이다. 일지련은 강남홍의 검술에 법도가 있어서 가볍게 대

---

43) "雷天風, 忿氣騰天, 揮斧而赴紅娘, 紅天然而笑, 杖芙蓉劒而植立不動. 天風尤怒, 大呼一聲, 盡力揮斧, 擊紅娘, 紅忽揮雙劒, 聳身於半空, 天風仰擊空中, 急欲收斧, 鏘然之聲, 忽出於頭上. 飛劒落自空中而, 擊破頭上之胃. 天風慌忙, 翻身落馬, 紅更不顧視而收劒."(『玉樓夢』, 149쪽; 『옥루몽』2, 25쪽.)

44) "亂揮手中雙劒, 一進一退, 此老龍弄珠法. 一枝蓮見紅娘之劒術, 有法度, 知其不可輕敵, 舞雙鎗而直赴紅娘, 此秋鶻下山法. 紅娘以左手之劒, 投於空中, 以右手之劒, 擬一枝蓮, 回馬而走, 此燕蹴飛花法. 一枝蓮以右手之鎗拒劒, 以左手之鎗取紅娘, 此獼猴偸果法. 紅娘欠身避鎗, 以雙手劒, 投之空中, 走馬以進, 此猛虎摺尾法. 一枝蓮聳身馬上, 以雙鎗拒雙劒, 走馬進紅娘, 此白猿逐鹿 鹿法. 紅司馬仍回馬首, 以右手之劒, 擬於空中, 以右手之劒, 欲擊一枝蓮, 此獅子搏兎法. 一枝蓮擬以雙鎗, 一進一退, 此蜘蛛縛蝶法."(『玉樓夢』, 177쪽; 『옥루몽』2, 83~84쪽.)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적할 수 없다는 것을 느낀다. 강남홍은 같은 여성에게도 인정받고 검술 사용에 있어서도 절도 있는 모습을 보인다.

> 어디서 온 劍光인지, 동해 번쩍하면 오랑캐 장수의 목이 땅에 떨어지고, 서에 번뜩하면 오랑캐 병졸의 목이 땅에 떨어졌다. 동쪽을 진정시켜 놓으면 서쪽이 소란스러워지고, 앞쪽을 방비해두자마자 뒤쪽이 급작스러워지는 것이었다. 빠르기는 바람과 같고 신속하기로는 우레와 같아서, 오가는 종적을 멍하니 측량키 어려웠다. 한 필 말 그림자가 번쩍이며 지나가면 오랑캐 병사들의 머리가 어지러이 한꺼번에 사라진다.[45]

강남홍이 검을 눈 깜짝할 새도 없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휘두르며 오랑캐의 목을 베는 내용이다. 그녀의 검은 바람같이 빠르고 우레와 같이 신속하여 그 정도를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오랑캐의 병사들이 손을 쓸 틈도 주지 않고 그들의 목숨을 빠르게 처리하였다. 강남홍의 검은 매우 신속하고 정확하며, 거침이 없다.

> 천자는 즉시 홍혼탈의 표문에 답변을 내렸다.
>
> 기이하구나. 卿의 일이여! 주나라를 어지럽힌 亂臣 열 명 중에 여자가 끼어 있었다고는 하지만, 나라가 사람을 등용하는 것은 다만 그 재주를 취하는 것일 뿐이다. 어찌 남녀를 논하여 가려 뽑겠는가. 경은 사양치 말고 나라를 도와서, 만약 큰일이 있으면 남자의 옷으로 조정에 오르고 작은 일이 있으면 집안에서 결정하도록 하여라.[46]

강남홍이 천자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여자가 남자로 변한 죄와 임금을 속이고 윗사람을 속인 죄를 다스려 달라는 내용의 표문을 올렸다. 그 표문에 대하여 답하는 내용이다. 천자는 강남홍의 재주에 놀라며, 그 재주를 높이 평가하고 필요한 인재라고 판단하였다. 나라가 사람을 등용하는 것은 재주를 취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큰일이 있으면 남자의 옷을 입고 조정에 오르라고 하며 장군으로서 인정했다. 이렇듯 강남홍은 남성뿐 아니라 천자까지도 인정한 실력 있는 여장군으로 더 이상 약한 존재의 여성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

45) “何來劍光, 東閃而蠻將之頭落地, 西忽而蠻卒之頭落地. 東方纔鎭則, 西方擾亂, 前面纔備則, 背後蒼黃. 迅之如風, 疾之如雷, 往來踪跡, 怳惚難測. 一匹馬影, 閃閃過去, 紛紛蠻卒之頭, 一時掃除.” (『玉樓夢』, 241~242쪽; 『옥루몽』2, 211쪽.)

46) “卽批答曰: ‘奇哉. 卿之事! 周之亂臣十人, 女子與焉, 國家用人, 但取其才. 豈論男女而揀擇去取. 卿其勿辭, 以輔國家, 若有大事, 以男服登朝班, 小事決於家中.’”(『玉樓夢』, 264쪽; 『옥루몽』3, 10쪽.)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담장에서 찬바람이 홀연 일어나면서 마른 낙엽이 날리는 것이었다. 강남홍이 깜짝 놀라 부용검을 뽑아들고 양창곡을 막아섰다. 순간 웬 사내가 번개같이 담장을 넘어와 나는 듯이 양창곡을 짓쳐오는 것이다. 강남홍이 다급하게 쌍검을 휘둘러 적을 방어하니, 사내는 다시 서릿발 같은 칼을 들어 양창곡을 놓아두고 강남홍 쪽으로 달려들었다. 달빛 아래 칼빛이 날리는 눈발처럼 어지러웠다. 한참을 싸우더니, 사내는 결국 땅에 거꾸러지며 탄식했다.

"내 일찍이 검술로 횡행하면서 수많은 적을 무찔러 천하무적이라 자부했는데, 그대 같은 검술은 지금 처음 접하오. 이는 하늘이 반드시 나를 죽이려는 것이로구나."[47]

강남홍은 담장에서 찬바람이 불어오자, 적이 오는 것을 감지하고 검을 들어 방어하는 내용이다. 강남홍의 검은 날리는 눈발처럼 정신은 없었지만 정확하였다. 적은 그 검을 감당하지 못한 채 쓰러지고, 처음 접하는 검술이라며 놀람을 금치 못하였다. 이처럼 강남홍은 검을 다루는 수법이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빠르고 정확할 뿐 아니라, 촉각이 예민하여 그 사용이 다양하게 능통한 것을 알 수 있다.

선우가 크게 노하여 좌우를 돌아보며 크게 소리를 지르니, 매복해 있던 역사들이 한꺼번에 창을 들고 갑자기 나왔다 전후좌우에 창칼이 삼[麻]처럼 빽빽하나, 홍혼탈은 웃는 입이 살짝 열릴 뿐 의연한 모습으로 움직임이 없었다. 순간 그녀가 두 손에 쌍검을 들고 번개처럼 휘두르면서 東西를 방비하니, 한 줄기 푸른 기운이 칼 끝에서 일어나면서 살랑거리는 찬바람이 주변의 사람들을 덮었다.

(…) 홍혼탈이 한번 웃더니 쌍검을 뒤집자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었다. 잠시 후 진영이 소란스러워지더니 황망하게 엎어지고 자빠지면서 수만 명의 홍혼탈이 나타났다. 동쪽에서 치고 서쪽에서 돌격하며 남에 번쩍 북에 번쩍 사방이 온통 홍혼탈이었다. 훌쩍 갔다가 훌쩍 오면서 쌍검이 무수히 많았다. 십만 명의 오랑캐들 눈이 어질어질하면서 사방으로 흩어졌다.[48]

---

47) "自墻頭寒風, 忽起而枯葉飛下, 鸞城大驚, 拔芙蓉劒而, 陪立燕王. 須臾一個漢子, 閃忽踰墻, 飛也似來犯燕王. 鸞城慌忙, 揮雙釼而防敵, 漢便擧霜刃, 捨燕王而赴鸞城. 月下釼光, 紛紛若飛雪. 鬪至半晌, 漢子竟倒地而歎曰: '我曾以釼術橫行, 天下無敵, 如此釼術, 今初見, 此天必殺我.'"(『玉樓夢』, 300쪽; 『옥루몽』3, 86쪽.)

48) "單于大怒 顧左右呼, 埋伏力士, 一時擧鎗突出, 前後左右, 鎗劍如麻, 紅娘笑口微開, 依然不動. 爾手雙劍, 揮之如電, 東西防備, 一道靑氣起於劍頭, 習習寒風 左右襲人.…紅娘一笑, 飜雙劍而不知去處, 我而陣中擾亂, 蒼黃顚倒, 千百紅渾脫, 東衝西突, 北閃南忽, 西方都是紅渾脫, 倏往倏來, 雙劍無數. 十萬胡兵, 眼目迷亂, 精神眩昏, 散之西面."(『玉樓夢』, 371~372쪽; 『옥루몽』3, 236쪽.)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강남홍은 오랑캐의 어떤 움직임과 소리에도 호응하지 않고, 오히려 웃음으로 화답하며 오랑캐를 가볍게 대적하고 있는 내용이다. 십만 명이 넘는 오랑캐를 무서워하는 기색 없이 혼자 상대하고, 바람같이 빠른 몸의 움직임으로 오랑캐를 혼란시켜 구별하기 어렵게 만든다. 강남홍은 항상 쌍검을 사용하면서 다양한 술법까지 동원하여 오랑캐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든 후 상황을 정리하는 방법을 꾸준히 보이고 있다.

강남홍의 활쏘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대왕 발해는 철퇴를 옆에 끼고 말을 달려서 곧바로 잡으러 들어왔다. 홍혼탈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돌리고는, 보추궁을 당겨서 첫 번째 화살을 쏘았다. 옥 같은 손이 한 번 번뜩이자 발해의 왼쪽 눈에 화살이 정확히 꽂히면서 눈알이 튀어 나왔다. 발해의 한 손으로 화살을 뽑고 한 손으로는 철퇴를 들고는 크게 소리를 지르는데, 노기가 하늘을 찌르는 듯하였다.
>
> (…) 발해가 오른손의 철퇴를 홍혼탈에게 던졌다. 그녀가 몸을 돌려서 피하면서 옥 같은 손을 한 번 번뜩였다. 활시위 소리와 함께 유성 같은 화살이 발해의 입에 정확히 꽂혔다. 발해는 손으로 화살을 뽑아 버렸다. 선혈이 입에 가득하고, 하나 남은 눈은 불처럼 빛을 냈다.[49]

강남홍은 철퇴를 끼고 말을 달려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적의 눈을 단 한 번의 활쏘기로 적중하였다. 그리고 이어 또 한 번의 활쏘기로 적의 입을 적중하였다. 강남홍은 적의 철퇴 등의 무기를 피하며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상대가 자신을 대적 할 때마다 꼼짝도 하지 못하게 활로써 다스렸다. 강남홍의 활 쏘는 솜씨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고 정확하다.

> 오랑캐 장수들이 한꺼번에 활을 당겨서 동쪽을 향해 쏘니 그는 이미 북쪽에 있고, 남쪽으로 쏘면 이미 서쪽에 있었다. 동서남북을 훌쩍 갔다가 훌쩍 오면서 화살 하나 맞지 않았다. 오히려 오랑캐 병졸들이 화살에 맞아 죽어서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였다.[50]

---

49) “小大王拔解, 挾椎馳馬而直取, 紅娘微笑回馬, 挽寶雕弓, 初發一失. 玉手一翻, 正中拔解左目, 眼睛突出. 拔解大號一聲, 一手拔失, 一手擧椎, 怒氣騰天.…以右手之鐵椎, 向紅娘而投. 娘回身而避, 一翻玉手. 弦響起處, 矢如流星, 卽中拔解之口. 拔解拔去其矢, 鮮血滿口, 隻餘眼, 光如火起.”(『玉樓夢』, 229쪽; 『옥루몽』2, 185~186쪽.)

50) “蠻將一時挽弓, 向東以射則己在於北 ,向南而射則己在於西. 東西南北, 倏往倏來, 一矢不中. 蠻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강남홍은 활 쏘는 솜씨뿐 아니라, 오랑캐가 쏘는 화살의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여 동서남북으로 몸을 피하며 화살을 하나도 맞지 않는 機智를 보였다. 그 동시에 오랑캐의 위치를 정확하게 기억하여 활을 당기기만하면 적중하고, 그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이는 대단함을 보였다.

> 진왕이 깜짝 놀라 만류하면서 말했다.
>
> "과인이 비록 홍장군의 재주를 모르지만, 지금 저렇게 뒤엉켜 싸우느라 네 개의 손이 혼란한 상황에서 어찌 정확하게 선우의 손을 쏘아 맞추겠소이까? 만약 잘못 맞추기라도 한다면 어찌 낭패가 아니겠소?"
>
> 홍혼탈이 미소를 짓고 몰래 허리에 차고 있던 활과 화살을 뽑았다. 옥 같은 손이 한 번 번뜩이자 화살은 유성처럼 날아가 선우의 손을 정확히 맞추었다. 선우가 깜짝 놀라 왼손으로 오른손의 화살은 뽑아냈다. 홍혼탈이 다시 활을 당기자, 활시위 소리가 나는 곳에 또 선우의 손에 적중시켰다. 진왕과 여러 장수들이 칭찬을 그치지 않았다.[51]

강남홍은 자신의 재주를 모르는 진왕이 뒤엉켜 싸우는 혼란한 상황 속에서 오랑캐의 손을 어떻게 활로써 적중할 수 있겠냐며 만류하자, 우습다는 듯 몰래 활을 당겨 오랑캐의 손을 적중하는 내용이다. 진왕이 깜짝 놀라 강남홍의 재주를 더욱 감탄하고 여러 장수들과 함께 칭찬을 멈추지 않았다. 강남홍의 활 쏘는 솜씨는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실력을 지녔다.

강남홍의 陣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양창곡이 이에 북을 치고 깃발을 휘둘러 36개 부대를 나누어 여섯 방위를 만든 뒤 六花陣을 펼쳤다. 강남홍이 웃으면서 북을 쳐서 오랑캐 병사들은 지휘하더니, 2쌍의 기마를 12대로 나누어 胡蝶陣을 만들어 육화진과 부딪쳤다.
>
> (…) 양창곡이 다시 육화진을 변화시켰다. 군대를 64개로 나누고 8개의 방위를 만들어 八卦陣을 펼쳤다. 강남홍이 다시 북을 쳐서 병사들을 지휘하여, 大衍五十五의 五方方圓陣을 펼쳐서 팔괘진과 충돌하였다.

兵中矢而死, 積屍如山."(『玉樓夢』, 242쪽; 『옥루몽』2, 211쪽.)

51) "秦王大驚挽留曰: '寡人雖不知紅將軍之才, 方今混戰如此, 四手混亂之地 豈能的知當處而射乎? 若誤中, 豈不狼狽? 紅司馬微笑, 暗抽腰間弓失, 玉手一翻, 失如流星, 正中單于之手. 單于大驚, 左手欲拔右手之失. 紅司馬復挽弓, 弓絃響處, 又中單于之手. 秦王與諸將. 稱讚不己."(『玉樓夢』, 385쪽; 『옥루몽』3, 263쪽.)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양창곡이 크게 놀라 급히 팔괘진을 거두고 좌우의 날개를 만들면서 鳥翼陣을 펼쳤다. 강남홍 역시 방원진을 변화시켜 長蛇陣을 펼쳐서 조익진을 꿰뚫고 크게 외쳤다.

(…) 강남홍이 미소를 지으며 북을 쳐서 장사진을 나누어 여러 곳에 魚鱗陣을 펼쳤다. 이는 적군을 속이는 진이었다.

(…) 그리고는 어린진을 변화시켜 다섯 부대로 나누어 方陣을 만들었다. 양창곡이 바라보다가 탄식하였다.[52]

강남홍이 북을 치면 군사들이 움직여 陣을 펼쳐서 오랑캐를 방어하는 내용이다. 강남홍은 적군인 양창곡이 북을 쳐서 六花陣을 펼치자, 胡蝶陣을 만들어 六花陣과 부딪쳤다. 이 후에도 강남홍은 양창곡의 진에 맞서며 大衍五十五의 五方方圓陣, 長蛇陣, 魚鱗陣, 方陣 등의 다양한 진법으로써 대적하였다. 양창곡은 강남홍이 자신의 진법에 당황하는 기색이 전혀 없고, 어떤 진법이던 미소를 지르며 가볍게 대적하는 것을 보고 탄식하며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강남홍의 陣法에는 胡蝶陣, 大衍五十五의 五方方圓陣, 長蛇陣, 魚鱗陣, 方陣을 비롯해 다양하며, 진법을 변화시켜 다른 진법으로 또 다른 진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진법을 펼친다.

지금까지 네 작품의 武勇에 대해 살펴보았다. 「洪桂月傳」의 홍계월은 검술, 「朴氏傳」의 박씨는 진법, 「方翰林傳」의 방관주와 『玉樓夢』의 강남홍은 검술과 진법, 그리고 활쏘기에 능통한 무예를 지녔다. 홍계월은 남성들을 장악할 만큼의 대단한 검술 실력을 지녔으며, 박씨는 八陣圖法의 진법을 사용할 줄 알지만, 그 이상의 진법과 무예는 찾을 수 없었다. 방관주와 강남홍의 검술과 진법, 그리고 활쏘기는 남성들을 조롱하며 상대할 정도로 빠르고 정확한 실력을 겸비하고 있었다.

3. 戰術 智略과 협상 능력을 지닌 여장군

전쟁에서 전술 지략과 협상은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승리 방법이다. 이러한 전술 지략과 협상 방법을 여성영웅들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

52) “元帥乃擊鼓揮旗, 分六六三十六爲六方, 結六花陣. 紅娘笑而亦擊鼓, 指揮蠻兵, 雙雙二十四騎, 分十二隊, 作胡蝶陣而, 衝突六花陣.…元帥擊鼓揮旗而, 變六花陣, 分八八六十四爲八方位, 作八卦陣. 紅娘更擊鼓, 指揮蠻兵, 設大衍五十五, 五方方圓陣 衝突八卦陣.…元帥大驚, 急收八卦陣, 成左右翼而, 結鳥翼陣, 紅娘亦變方圓陣, 設長蛇陣, 穿鳥翼陣.…紅微笑擊鼓, 分長蛇陣, 成數處魚鱗陣, 此欺敵國之陣.…乃變漁鱗陣而分五隧, 成方陣.”(『玉樓夢』, 147~148쪽; 『옥루몽』2, 20~21쪽.)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형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方翰林傳」의 방관주는 전쟁을 하는데 있어서 무조건 공격하는 것은 아니다. 전쟁에 앞서 적국의 왕에게 지혜롭게 명철한 언어로써 설득하는 檄書를 보내어 그 뜻을 살핀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더라도 다른 한 쪽에게 패배라는 설욕을 안겨주지 않는 한 차원 높은 승리를 보여준다. 적국이 패배하기는 하였지만 그들에게 예의를 다함으로써 전쟁은 하나의 잔치로 종결된다. 이러한 방관주의 뛰어남은 방관주의 명성을 날로 높아지도록 하였다.[53]

방관주의 협상 능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大明 대원수 병부상서 태학사 정북장군은 글로 먼저 오랑캐 왕에게 죄를 묻노라. 위로 하늘이 있고 가운데 임금이 계시며 아래로 땅이 있으니 천자는 곧 하늘이요, 제후는 백성이다. 하물며 임금은 신하의 부모이거늘 이제 너희 무리가 대국의 신하라 하면서 감히 天命을 거역하며 하늘을 抗拒하니 이는 스스로 패망을 취한 것이로다. 내 임금의 명령을 받아 특별히 無道한 오랑캐를 쓸어버리려 하니 만일 항복하면 滅族之禍를 면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는다면 용서하지 않으리라."[54]

위의 인용문은 방관주(대원수)가 오랑캐의 왕에게 항복을 요청하는 협상의 격서를 보낸 내용이다. 방관주는 싸움에 있어서 항상 격서를 보낸다. 싸움으로써 해결하지 않고 지혜롭고 설득력 있는 대화로 타협점을 찾아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나 오랑캐의 왕은 이러한 합의점의 항복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싸움으로써 대응한다. 그러나 방관주의 처단으로 패배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패배는 방관주의 아량으로 왕의 목숨을 살려주기 때문에 설욕을 안겨주지 않게 된다.

> 방 원수가 진을 무찌르고 장막에 돌아와 오랑캐 왕을 묶은 것을 풀어주고 말하였다.
>
> "승패는 兵家의 商事라. 왕이 아직도 마음으로 항복할 뜻이 없거든 다시 돌아가 승부를 겨루는 것이 어떤가?"
>
> 오랑캐 왕이 머리를 조아리고 사죄하며 말하였다.
>
> "원수께서 한 목숨을 살려주시면 마땅히 降表를 갖추어 항복의 뜻을 이루겠나이다. 어찌 감히 뉘우치는 뜻이 없겠나이까?"

---

53) 정진숙,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여성 인물의 사회적·이념적 의미 연구; <박씨전>, <홍계월전>, <방한림전>에 나타난 여성의식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46~47쪽 참조.

54) 「方翰林傳」, 57쪽.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원수가 기쁜 빛으로 칭찬하며 말하였다.

"이와 같다면 어찌 아름답지 않으리오? 성인이 말하기를, '깨닫는 것이 지극히 귀하다'고 하였으니 왕이 잘못을 뉘우쳤으면 어진 자로다."

그러고서 내어 보내니 오랑캐 왕이 감격하여 돌아가 항표를 올렸다. 말이 공손하고 죄를 가득히 일컬었으므로 원수가 크게 기뻐하여 오랑캐 왕을 정성껏 대접하고 군대를 돌리려 하였다. 오랑캐 왕이 잔치하여 원수를 대접하고 백 리 밖에 나와 陪送하였다.[55]

방관주(방원수)는 패한 오랑캐 왕에게 항복과 싸움을 다시 요청하며 선택권을 준다. 항복의 뜻이 있는 왕에게는 목숨을 살려주고, 크게 꾸짖어 뉘우치게 하고 포용함으로써 적군이 아닌 우상의 인물이 되어 크게 대우받으며 평화롭게 승리한다. 그러나 항복하지 않은 왕은 그 목숨으로 항복을 받아내는 냉철함을 보이기도 한다.

「朴氏傳」의 박씨는 뛰어난 예지력으로 전쟁 등의 발생을 예견하여 사전에 지략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대처하는 여성이다. 박씨는 호국이 빼어난 미모의 여인 奇紅大를 보낸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시백에게는 피화당으로 보낼 것을, 여종 계화에게는 독한 술과 순한 술을 빚으라고 하며 계책을 세워 화를 면하게 된다. 이 후 박씨는 북방의 호적을 대비하여 임경업장군을 內職으로 불러 군사를 막을 것을 요청하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默殺당하게 된다.

박씨의 전술 지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계화를 불러

"네 술을 많이 빚되, 독한 술과 순한 술을 절반씩 빚었다가, 아무 때라도 내가 어떠한 여인을 데리고 술을 가져오라 하거든 가지고 와서, 그 여인은 독한 술을 권하고 나는 순한 술을 권하며, 안주도 많이 장만하라."

하고 각별 단속하더라.[56]

박씨는 사전에 이시백에게 미모의 여인이 찾아오면 피화당으로 보낼 것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여종 계화에게는 독한 술과 순한 술을 빚으라고 하며 내가 어떤 여인을 데리고 오면 술을 가져오라고 하였다. 박씨는 기홍대를 무예로써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독한 술과 순한 술을 준비하게 한 것이다. 자신에

55) 「方翰林傳」, 60~61쪽.
56) 「朴氏傳」, 191쪽.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게는 순한 술을, 기홍대에게는 독한 술을 권하게 하여 기홍대를 잡을 계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후 기홍대는 박씨의 계략에 넘어가 술이 취하여 정체가 탄로 나고, 박씨는 크게 꾸짖은 뒤 호국으로 돌려보냈다. 이러한 박씨의 태도는 탁월한 무예는 없으나 총명함과 명석한 두뇌를 지닌 여성임을 보여준다.

> 박씨가 피화당에서 천기를 보고, 우상을 청하여 이르기를,
> "북방 호적이 금방 들어오는가 싶으니, 급히 탑전에 아뢰어 임경업을 內職으로 불러, 군사를 早發하여 막으소서."
> (…) 김자점이 또 아뢰되,
> "시방 時和年豊. 太平盛大에 무슨 병란이 있으니까. 박씨는 요망한 계집이어늘, 전하 어찌 요망한 말을 沈惑하시며, 국가대사를 아이 희롱같이 하시나이까."
> 하니, 만조백관이 김자점의 말이 그른 줄 알되, 아무 말도 못하더라.[57]

박씨는 이시백에게 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략을 도모해 주지만, 김자점에 의해 여성이라는 이유로 默殺당한다. 결국 전쟁에 대비하지 못하고 패하게 된다. 왕은 박씨의 말대로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며, 박씨가 남자가 되었다면 '호적을 두려워하지 않았겠다'라고 말하며 탄식하였다. 이 후 박씨를 折衝夫人에 봉하고 '자손을 벼슬 주고, 천추만대에 유전하라.'고 詔書를 내렸다.

「洪桂月傳」의 홍계월은 전쟁에서 협상하기 보다는 명령으로써 항복을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무예를 사용함으로써 승리를 이루어내는 여성이다.
홍계월의 협상 능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적장은 들으라. 전자의 盛德이 어지사 천하의 백성이 격양가를 부르며 만세를 창호하거늘 너희 놈이 反心을 두어 황성을 범코자 하니 천자가 백성을 건지라 하고 나에게 명하여 보내시니 너희 등은 목을 늘여 내 칼을 받으라. 두렵거든 빨리 나와 항복하라.[58]

홍계월은 지혜롭거나 설득력 있는 방식이 아닌 위의 인용문과 같이 적장의 陣營 앞에 서서 항복을 요구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무조건적인 항복은 적의 화를 돋우고

57) 「朴氏傳」, 199~201쪽.
58) 「洪桂月傳」, 168쪽.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심기를 건드리게 되면서 결국 싸움을 막지 못하게 된다. 홍계월은 적에게 절대 인정을 베풀지 않고 냉정하게 대하며 용서하지 않는다. 자신이 여성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남성과 같은 냉철함과 단호함을 더 뚜렷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玉樓夢』의 강남홍의 전술 지략과 협상 능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홍혼탈이 웃으며 말했다.
> "오늘밤에 나탁의 군영 안으로 들어가서 머리를 베어오지는 말고, 그 머리 위에 있는 산호로 만든 투구장식을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나탁의 머리 위에 칼자국을 남김으로써 대왕께서 다녀가셨다는 것을 표시해두십시오."
> 충육왕이 응낙을 하고 즉시 몸을 일으켜 나갔다.
> 양창곡은 홍혼탈을 돌아보며 말했다.
> "낭자는 축융왕이 이번 발걸음을 어떻게 생각하시오?"
> "검술이 거칠기 때문에 나탁을 놀라게만 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 (…) 이때 홍혼탈이 축융왕을 보내고 양창곡에게 말했다.
> "제가 먼저 축융왕을 침투시킨 것은 나탁을 놀라게 하여 더욱 방비하도록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제가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그 머리 위에 있는 투구장식을 가져오려 합니다."[59]

강남홍(홍혼탈)은 축융왕에게 오랑캐의 왕인 나탁의 방에 침투하여 투구장식을 가져오면서 그 머리 위에 칼자국을 남기고 오라는 계책을 마련해준다. 그러나 이를 의아하게 여긴 양창곡은 강남홍에게 그 연유를 묻는다. 강남홍은 축융왕의 검술이 거칠기 때문에 나탁을 놀라게만 할뿐 투구장식은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며, 이 후 자신이 투구 장식을 가져오려는 생각이라고 말한다. 축융왕에게 모든 계책을 말하면 실수를 하게 될까 염려하여 숨은 뜻을 다 말하지 않은 것이다. 강남홍은 계책을 마련할 때 혹시나 생길지도 모르는 상황을 모두 대비하여 사람의 자질이나 수준을 평가하고 계획을 진행하는 진중함을 지닌 여성이다.

> 홍혼탈이 여러 장수와 대군을 거느리고 뗏목을 타고 물을 거슬러 대룡강을 향하여

59) "紅司馬笑曰: '望大王今夜, 入哪吒帳中, 勿取其頭, 但取其頭上珊瑚頂子. 留釗痕於, 哪吒頭上, 以表大王之踪跡.' 祝融應諾, 卽起身而去. 元師顧紅司馬曰: '娘以爲祝融此行何如?' 紅娘對曰: '祝融之釗術麤率, 但驚哪吒而來."(『玉樓夢』, 183~184쪽; 『옥루몽』2, 96~98쪽.)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올라갔다. 때는 4월 보름 무렵이었다. 연일 남풍이 크게 불자 탈해와 소보살은 바람을 따라 북을 울리면서 행군해왔다. 물 한가운데에 이르러 갑자기 명나라 진영에서 대포소리가 한 번 울렸다. 순가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는 불길이 오랑캐 전함에서 일어나면서, 두 명의 어부가 크게 소리를 지르더니 급히 작은 어선을 흔들면서 명나라 진영으로 달아나는 것이었다. 원래 검은 얼굴의 어부는 손야차였고, 다른 한 사람은 철목탑이었다. 이들은 홍혼탈의 명을 받고 유황과 焰硝, 불을 댕기는 물건을 배에 감추었다가 명나라 진영에서 울리는 대포소리에 맞추어 불을 지르고 달아난 것이었다.60)

강남홍이 군사들과 함께 대룡강을 올라갈 때 오랑캐인 명나라 진영에서 대포를 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여, 명나라 진영에서 울리는 대포소리에 맞춰 손야차와 철목탑을 시켜 불을 지르게 하는 내용이다. 강남홍은 적군이 처한 상황과 위치에서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지를 미리 예측하여, 그 상황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방어할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총명함을 지녔다.

양창곡이 크게 기뻐하면서 계책을 묻자 홍혼탈이 몰래 말했다.

"첩이 일찍이 백운도사를 따라서 진법을 깨는 방법을 하나 배운 것이 있습니다. 轟天砲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땅을 파고 12方位에 응하여 큰 솥을 묻습니다. 그 솥 안에 화약을 가득 채우고 뚜껑을 덮은 뒤 좌우에 구멍을 뚫습니다. 그 중심부를 파고 그 속에 火繩을 길게 이어놓고 10여 걸음마다 그릇에 물을 담아서 화승 아래로 묻어놓습니다. 불기운이 물기운을 얻게 되면 꺼지지 않고, 물기운이 또한 불기운을 이끌 수 있지요. 다시 1백 걸음 밖 토굴까지 화승을 이어놓습니다. 그 토굴에는 병사들을 매복시켜 두었다가 시기를 틈타서 화승에 불을 붙입니다. 이 방법의 사용처는 비록 적지만 오늘 적병들이 만약 자기 부대를 비우게 된다면 제가 즉시 군대를 이동시켜 오랑캐의 진영에 진을 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계획은 화약이 풍족해야만 실행이 가능합니다."61)

---

60) "元師率諸將與大軍, 乘筏溯流, 向大龍江, 時則四月望間. 連日南風大作, 脫解菩薩, 隨風鳴鼓而行軍. 至中流, 忽然明陣中一聲砲響. 無根之火, 起於蠻船, 兩個漁父, 大呼一聲, 急搖一葉漁船 逃歸明陣. 元來黑面漁父孫夜叉, 一人鐵木塔. 領元師將令, 藏硫黃焰硝, 引火之物於船中, 應明陣砲響, 衝火而走."(『玉樓夢』, 248쪽; 『옥루몽』2, 225쪽.)

61) "元師大喜問計, 嫖姚密告曰: '妾曾從自雲道士, 學一槪個破陣之法, 名曰轟天砲. 掘地而應十二方位, 埋大釜, 滿盛藥丸於釜中, 覆盖而穿穴於左右. 掘垓而延置火繩於其中, 十餘步式, 盛水於器而埋之. 火氣得水기則不滅, 且水氣能導火氣. 復於百步之外, 埋土窟, 火繩之端, 緣垓而使通於土窟. 埋伏數兵於土窟, 乘時燒火. 此法用處, 雖小今日敵兵, 若空其寨, 我卽移軍而, 陣於胡兵之陣處, 可行此計. 然但藥, 豊足然後, 可行此計也."(『玉樓夢』, 360쪽; 『옥루몽』3, 213~214쪽.)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강남홍이 백운도사에게 배운 轟天砲를 사용하여 적의 진영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는 내용이다. 남성인 양창곡도 그 대비책을 신뢰하여 따르고 실행 할 정도로 뛰어나다. 강남홍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적절한 대비책을 생각해낸다. 백운도사에게서 배운 용병술을 하나도 빼지 않고 기억하며 적절하게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을 지녔다.

> 홍혼탈이 손야차에게 진영 위에서 그들에게 소리치게 하였다.
> "장군들은 들으라. 너희 목숨을 빌려주어 죽이지 않겠다. 빨리 돌아가 축융왕에게 어서 항복하라고 전하라. 만약 지체한다면 후회를 면치 못하리라."[62]

강남홍은 왕이 항복하면 장군들의 목숨을 해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장군들에게 왕의 항복을 요청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항복하지 않으면 죽음을 모면하지 못할 것이라며 냉철한 모습을 보였다.

지금까지 네 작품의 전술 지략과 협상 능력에 대해 살펴보았다. 「方翰林傳」의 방관주는 격서를 통해서 적에서 항복을 요청하는 협상으로 아량과 냉철함을, 「朴氏傳」의 박씨는 예지력으로 계책을 마련하여 전쟁에 대비하는 총명함과 명석함을, 「洪桂月傳」의 홍계월은 항복을 요구는 방식으로 냉철함과 단호함을, 『玉樓夢』의 강남홍은 전쟁에 대비할 수 있는 계책을 마련하고, 적에게도 항복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중함과 총명함, 그리고 냉철함을 보이고 있었다.

62) "紅司馬使孫夜叉, 呼於陣上曰: '蠻將聽之, 假爾性命而不殺, 速歸而傳於祝融, 使之早降. 若遲則不免後悔.'"(『玉樓夢』, 172쪽; 『옥루몽』2, 73쪽.)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Ⅲ. 가정에서의 여성 형상 비교

이 장에서는 여주인공이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는 여성 형상에 대해 살펴 볼 것이다. 『玉樓夢』·「朴氏傳」·「洪桂月傳」·「方翰林傳」의 네 작품은 모두 주인공이 여성이지만 각각 가정에서 처한 상황과 위치가 모두 다른 것이 특징이다. 『玉樓夢』의 강남홍은 남주인공 양창곡의 2처3첩 중 첫 번째 첩이지만, 처보다 더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이다. 「朴氏傳」의 박씨는 추녀에서 미인으로 변신한 후 남편의 사랑을 받게 되는 여성이다. 「洪桂月傳」의 홍계월은 남장을 하고 살아가다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원치 않는 혼인을 하고 여성으로서 장군의 역할을 수행한다. 「方翰林傳」의 방관주는 남장여성으로 여성임이 밝혀질까 두려워 동성결혼을 감행하는 여성이다. 이 네 작품의 주인공이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어떤 위치에서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는지 세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 작업을 통해 네 작품에 보이는 여주인공의 성격과 여성적 형상의 유사점과 차이점이 좀 더 선명히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玉樓夢』의 강남홍과 「朴氏傳」·「洪桂月傳」·「方翰林傳」의 여주인공을 비교함으로써 강남홍만이 지닌 여성적 형상을 좀 더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 애정의 조건과 부부관계

결혼은 부모가 결정하는 것이며, 미혼 남녀가 자유롭게 교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회 상황 속에서 연애를 추구하는 소망은 자연스럽게 결혼의 틀 안으로 향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전혀 면식이 없는 두 사람이 먼저 부부 관계로 맺어진 다음에, 남녀의 감정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연애와 유사한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다.[63] 일반적으로 조선시대의 부부관계는 부모에 의한 결연, 중매에 의한 결연 등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모든 결혼이 부모에 의해 배우자가 결정되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朴氏傳」·「洪桂月傳」·「方翰林傳」·『玉樓夢』의 네 작품은 他意에 의한 결연과 自意에 의한 결연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결연 과정에서 애정의 조건은 무엇이며, 부부관계는 어떻게 유지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63) 이용주 옮김, 『사랑의 중국 문명사』, 이학사, 2004, 27쪽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1) 他意에 의한 결연

「朴氏傳」의 박씨는 아버지인 박처사와 이시백의 아버지인 이득춘에 의해 가연을 맺게 된다. 그러나 박씨의 게으른 모습과 '추녀'라는 이유로 시부를 제외한 시댁식구와 남편 이시백에게 천대받고 미움을 받기 시작한다.

박씨와 이시백의 결연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내 이곳에 옴은 다름 아니오라, 女息 하나 두었으되 나이가 이팔이요 才德이 남에게 내리지 아니하되, 혼인은 天定이 아니면 못할 뿐 아니라, 두루 구하여 귀댁 公子만한 자가 없사오니, 허락하실까 하나이다."
>
> 상공이 안마음에
>
> '이 사람의 거동이 비범하고 신기한 일이 많으니, 만일 자식으로 이 사람의 사위를 삼으면 필연 좋은 일이 있으리라.'[64]

박씨의 아버지인 박처사는 자신의 딸을 혼인시키기 위해 이득춘(상공)을 찾아간다. 박처사는 자신이 金剛山에 온 仙官임을 알리고, 이시백의 바둑과 玉笛 불기를 칭찬하며 친분을 형성시킨다. 이득춘 또한 선관을 사돈으로 맞으면 자식에게 좋을 일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여 혼사를 허락하게 된다. 박씨와 이시백은 자신들의 뜻과는 무관하게 아버지들의 친분관계로 인해 혼인을 하게 된다.

박씨의 醜卑한 모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공이 신부를 데리고 길을 떠나, 날이 저물매 여관에 들어가, 신랑과 신부를 데리고 한 방에 들어가니, 신분 무릎깨를 벗고 앉을새, 그 용모를 보니 형용이 흉측하여 보기가 염려로운지라. 얽기는 古石 같고 붉은 중에, 입과 코가 한 데 닿고, 눈은 달팽이 구멍 같고 치불거지고, 입은 크기가 두 주먹을 넣어도 오히려 넉넉하며, 이마는 메뚜기 이마 같고, 머리털은 짧고 심히 부하니, 그 형용을 차마 보지 못하겠더라. 상공과 신랑이 한 번 보매, 다시 볼 수 없어 간담이 떨어지는 듯하고 정신이 없어 두 눈이 어두운지라.[65]

이득춘과 이시백은 신부인 박씨를 데리고 오던 중 연관에 머물게 되면서 그 얼

64) 「朴氏傳」, 143~145쪽.
65) 「朴氏傳」, 151쪽.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굴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러나 빼어난 容貌를 지녔을 것이라는 생각과는 달리 박씨의 얼굴은 한마디로 흉측하였다. 박씨의 입과 코는 한 곳에 모여 있고, 눈은 달팽이 구멍 같이 작으며, 입은 두 주먹을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컸다. 이렇듯 한 군데도 예쁜 곳이 없었다. 박씨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란 이득춘과 이시백은 그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할 정도로 정신이 어지러웠다. 박씨와 이시백의 경우 서로의 애정 없이 부모에 의해 이루어진 혼사라고는 하지만, 한 평생을 함께 살아가면서 애정을 쌓아야 할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지 못할 정도의 인물인 것은 분명하였다. 이것은 애정의 조건에 배우자의 인물이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부인이 미워하고, 시백이 또한 內房에 거처를 전폐하니, 婢僕들도 朴氏를 또한 박대하더라. 박씨는 독부가 되어 슬픔을 머금고, 매일 밥만 먹고 잠만 자며 매사를 전폐하니, 일가가 더욱 미워하며 꾸지람이 집안에 가득하되, 다만 상공을 꺼려 面駁을 못하는지라.[66]

이시백이 박씨의 추비한 용모를 질색하여 內房에 들어가지 않고 홀대하자, 집안의 하인들도 박씨의 용모를 비웃고 박대한다. 박씨의 미움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졌는데 그것은 타고난 식탐과 잠 때문이었다. 일도 하지 않으면서 하루 종일 밥만 먹고 잠만 자는 그런 박씨가 시댁식구들에게 예뻐 보일리 없었다. 이러한 박씨는 시댁에 자신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후원에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이득춘에게 말하였다. 이 후에 박씨는 홀로 '避禍堂'이라는 공간에서 외로움과 아픔의 시련을 극복하고 여성으로서의 面貌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박씨의 여성적인 모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박씨 촛불을 밝히고 바늘을 잡아 조복을 지을새, 제일침재 선수들이 보니 기묘한 手品이라 다른 사람은 가리어 침재를 삼지 못할러라.
>
> 하룻밤 사이에 조복을 짓되, 앞에는 鳳凰을 새기고 뒤에는 靑鶴을 수놓았으되, 針線함이 흠잡을 곳 없어 인간수품이 아니라. 보는 사람이 뉘 아니 칭찬하리오. 계화로 하여금 상공께 드리니, 상공이 보고
>
> "이는 天上手品이요 人間繡針은 아니라."
>
> (…) "경의 조복을 보니, 앞에 수놓은 봉황은 凰이 鳳을 여읨이요, 뒤에 수놓은 청학은 白雪이 山河에 가득하여 주린 기색이니, 이 어찌한 연고요?"[67]

66) 「朴氏傳」, 155쪽.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득춘이 右議政으로 패초하여 대궐에 들어갈 때 갖춰 입을 조복을 지어야했다. 새 조복을 지을 사람을 구한다는 말을 듣고 박씨는 조복 짓기를 청하여 하룻밤 만에 완성하였다. 박씨가 지은 조복의 솜씨를 보고 상공뿐 아니라 임금까지 감탄하였다. 임금은 조복에 놓인 수를 보고 박씨가 배고픔의 기색이 있다는 것을 눈치 채고, 매일 쌀을 서 말씩 내리고 박대하지 못하게 하였다.

박씨가 지은 조복은 단순한 옷이 아님을 짐작 할 수 있다. 조복은 자신의 외로움을 표출하는 수단이었다. 임금이 청학을 목마름과 배고픔으로, 봉황은 짝을 잃고 홀로 울부짖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한 것은 박씨가 가족들과 남편 이시백의 사랑을 갈망하고, 홀로 지내는 외로움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박씨가
>
> "내일 鐘路에 濟州말이 많이 왔을 것이오니, 노복을 명하옵시어 繫馬중 패려하고 비루먹은 망아지를 300냥을 주고 사오라 하옵소서."
>
> 우상이 이미 그 신기함을 아는지라, 어찌 듣지 아니하리오. 급히 외당에 나와 노복을 불러 300냥을 주며 이리이리 하라 하시니,
>
> (…) 종로에서 사온 망아지를 3년 기르니, 한 호말마 되었는지라. 용의 몸에 범의 머리요, 걸음은 秋天의 구름 같더라.
>
> 박씨가 상공께 여쭈되,
>
> "某月某日 되면 中國에서 칙사가 나올 것이니, 그때 이 말을 새문 밖 迎恩門에 매어 두면, 칙사가 보고 당장에 사자하면 말값을 물을 것이니, 呼價를 3만 냥이라 하옵소서."[68]

박씨는 이득춘에게 비루먹은 망아지를 꼭 300냥을 주고 사오라고 하고, 한 끼에 쌀 서 되와 보리 서 되, 그리고 참깨 서 되씩을 먹여서 기르라고 하였다. 3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쌀, 보리, 참깨를 먹여 기른 망아지는 호말마가 되었다. 호말마가 된 말을 迎恩門에 매어 두어 3만 냥에 팔 수 있도록 하였다. 박씨는 말을 고르는 안목뿐 아니라, 말을 사육시키는 방법, 그리고 말을 제 가격에 파는 방법까지 이득춘에게 상세하게 알려줌으로써 집안의 재정에 보탬이 되고, 자신의 능력을 보이며 인정받게 되었다.

---

67) 「朴氏傳」, 159~161쪽.
68) 「朴氏傳」, 163~169쪽.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박씨가 추연히 한숨 쉬고 단정히 여쭈되

"微婦 얼굴이 추비하고 덕행이 없어 君子에게 뜻을 얻지 못하오니, 後苑에 협실을 창건하여 주옵시어, 일신을 감추어 거처케 하옵소서."

(…) 박씨가 桂花를 시켜 후원 협실 사방에다 나무를 심되, 동방에는 靑土요, 남방에는 赤土요, 서방에는 白土요, 북방에는 黑土요, 중앙에는 黃土요, 나무 나무 북돋아 때때로 물을 주어 무슨 형용같이 기르더니, 그 나무 무성하는지라.[69]

박씨는 '避禍堂'이라는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어 홀로 지내면서 나무를 가꾸기 시작했고, 그 재주는 기이했다. 어느 날 이득춘이 후원을 구경하니 나무는 용과 범 같았으며, 가지와 잎은 뱀과 짐승이 되어 서로 응하여 보기 엄숙하였고, 구름과 안개는 자욱하였다. 이득춘이 오래 서서 이슥히 보니 그 가운데 風雲造化가 있었다. 이득춘이 '피화당'이라고 지은 연유에 대해 물으니, 박씨는 훗날 화를 당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일일은 처사가 그 딸을 불러,

"네 이제는 厄運이 盡하였으니 허물을 고치라."

(…) 시백이 급히 들어가 방안에 들지 못하고 문 밖에서 엿보니 박씨가 과연 傾國之色이라. 방안이 명랑하고 향내 진동하여 들어가고자 할 때, 박씨가 또한 威嚴 씩씩하고 외모를 단정히 하여 눈을 들지 아니하매, 감히 들어가지 못하더라.[70]

어느 날 박씨의 아버지인 박처사가 나타나서 박씨에게 이제 액운이 다 되었으니 허물을 벗으라고 한다. 이 허물은 이시백이 박씨의 미모에 흠뻑 빠져 공적인 일을 하지 못하게 될까봐 염려하고, 또 박씨가 이시백의 공적인 일을 도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수단이었다. 박씨가 3년의 액운을 다하고 허물을 벗자 절세미인으로 변하였고, 이시백을 비롯한 시댁 식구들과 하인들의 태도가 달라졌다. 그리고 박씨 또한 그 전의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아름다운 자태와 고운 태도로 옛날의 西施와 楊貴妃라도 미치지 못할 만큼의 미인으로 변하였다. 이시백은 박씨의 미모에 감히 다가가지도 못하고 묵묵히 바라보고 생각만하다가 급기야 상사병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시백이 그 동안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면서 둘의 애정도가 상승하게

69) 「朴氏傳」, 157~165쪽.
70) 「朴氏傳」, 175~179쪽.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되었다.

「洪桂月傳」의 홍계월은 男服을 입고 남성으로 자라 사회에서 인정받고 남성보다 더 우월한 능력을 가진 여성이다. 이런 홍계월은 자신과 동문수학하고 전쟁에서 자신보다 더 낮은 직책에 있었던 남성 보국과 가연을 맺게 된다.

홍계월과 보국의 결연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일일은 천자 위국공을 입시하라 하사 가라사대,
>
> "짐이 원수의 상고를 본 후로 사념이 많은지라. 평국이 규중에 홀로 늙으면 홍무의 혼백이 의지할 곳이 없을 것이니 어찌 슬프지 아니하리오. 또한 평국의 혼인은 짐이 중매되고자 하니 어떠이뇨."
>
> (…) 이때 천자 태사관을 불러 택일하실새 마침 춘삼월 望間이라. 상이 택일단자와 예단 수백 필을 봉하여 위공의 집으로 賜送하시니라. 차시 위공이 택일단자를 가지고 계월의 침소에 들어가 전하니 계월이 대왈,
>
> "보국은 전인 중군으로서 수년을 수하로 부리던 사람으로, 내가 그 사람의 아내 될 줄 어찌 알았으리오. 다시는 예를 못 쓸까 하오니 이제 마지막 군례를 차리고자 하오니 복원 부친은 이 뜻으로 천자께 상상하옵소서."[71]

전쟁으로 인해 쇠약해진 홍계월의 맥을 짚은 어의는 이상하게 생각하여 천자에게 알리게 된다. 홍계월이 여성인 것을 알게 된 천자는 홍계월에게 여공의 아들 보국과의 정혼을 중매하게 된다. 천자는 여성인 홍계월이 홀로 늙으면 의지할 곳이 없게 될까 염려되는 가엾은 마음에서 중매를 하게 된다. 그 중매 상대가 보국인 것은 어릴 적부터 함께 동문수학하고 가깝게 지내왔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홍계월은 수년간 수하로 부리던 보국을 남편으로 맞이하여 존경하고 사랑할 자신이 없어 혼인이 기쁘지만은 않았다. 천자의 중매를 거부할 수 없는 홍계월은 보국과의 원치 않은 가연을 맺게 된다. 배우자와의 상하관계는 애정의 조건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홍계월의 여성적인 모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계월이 다시 절하고 왈,
>
> "少婦의 죽을 명을 구하옵신 은혜와 십삼 년을 양육하옵시되 근본을 아뢰지 아니한

71) 「洪桂月傳」, 180~181쪽.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죄 만사무석이옵고 또한 하늘이 도우사 舅姑를 섬기게 하옵시니 이는 소녀의 소원이로소이다."[72]

홍계월이 보국과의 혼인 후 처음으로 시부모에게 절을 하고 속마음을 전하는 내용이다. 홍계월은 자신이 여성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은 것에 사죄를 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살려주고, 보살펴 주신 은혜에 대한 보답을 시부모님으로서 섬길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는 뜻을 전한다. 이것은 자신이 앞으로 남성이 아닌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가정을 지키고 시부모님을 모시며 살아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시부모님에 대한 봉양 또한 애정의 조건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自意에 의한 결연

「方翰林傳」의 방관주는 여성임을 거부하고, 남성의 삶을 자리매김하기 위해 여성인 영혜빙과의 가연을 맺게 된다. 방관주의 옥 같은 외모와 풍채에 구혼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 중 방관주는 자신을 사랑하고 정성을 다해 구혼하는 영혜빙의 아버지인 영 공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방관주와 영혜빙은 여 공에 의해 이루어진 만남이었지만, 혼인은 두 사람이 만남을 통해 스스로 결정하게 되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방관주와 영혜빙의 결연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영 공이 방 한림을 크게 사랑하여 구혼을 정성껏 하였다. 한림이 매우 괴로웠으나 또한 이미 남자로 행세하여 몸을 마치려고 하면서 妻子를 두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이 의심할 것이니 차라리 아름다운 숙녀를 얻어 평생의 知己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였다.[73]

방관주(방한림)는 자신이 여성임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성과 혼인을 하는 일은 큰 죄를 짓는 일이라 생각하여 혼인을 하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영 공의 구혼과 남자로서 혼인을 하지 않으면 주변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여 의심을 품게 될까 걱정되어 혼인을 감행하게 된다. 방관주는 아름다운 숙녀를 얻어 평생의 知己로 삼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하여, 스스로 자신의 배우자를 결정하게

72) 「洪桂月傳」, 183쪽.
73) 「方翰林傳」, 26쪽.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되면서 가연을 맺게 된다.

> 한림의 말소리가 낭랑하나 가늘고 조용하며 나직하니 속으로 괴이하게 여겨 한 번 눈길을 주고 분명히 깨달아 오랫동안 생각하고 일어나 內堂에 들어가 조용히 헤아려 보았다.
>
> '예로부터 남자가 참으로 고운 사람도 있다고 하나 여자와는 차이가 많으니 어찌 이런 남자가 있겠는가? 부드럽고 시원스러워 이슬 맞은 꽃송이 같아 끝없이 무르녹았고, 온갖 태도는 아름답구나. 이는 반드시 어려서 부질없는 남복을 하여 부모가 일찍 죽으니 여자의 도리를 권해 가르칠 사람이 없어 끝을 맺기 어려워 이에 이른 것이니 진실로 가소로운 일이구나. 내가 보니 방 씨의 얼굴이 시원스럽고 행동거지가 단엄하여 일대의 奇男子다. 이런 영웅 같은 여자를 만나 일생 知己가 되어 부부의 의리와 형제의 정을 맺어 한평생을 마치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74]

영혜빙은 남성의 규제를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여성을 죄인으로 표현하며 남자가 못 된다면 인륜을 끊는 것이 옳다고 비관하는 여성이었다. 그러나 영혜빙은 아버지의 명으로 방관주를 보게 되고 기이하게 생각하여 여성임을 눈치 챈다. 영혜빙은 방관주를 기남자와 영웅 같은 여자라고 표현하며 자신이 이루지 못한 남성의 역할을 이룬 것에 존중하고, 서로를 知己로 여기며 한평생을 마치는 것이 소원이라며 혼인하게 된다. 이처럼 애정의 조건에는 배우자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방관주의 여성적인 모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첩이 만일 한림을 알지 못한다면 어찌 말이 당돌한 데에 미치겠습니까? 가만히 헤아려 보니 日月을 속이고 세상을 속여 陰陽을 바꿔 입었다는 것을 아니 한번 자세히 밝히시면 첩이 죽을 때까지 저버리지 않겠나이다."
>
> (…) 영 소저가 기쁜 낯빛으로 말하였다.
>
> "첩이 이미 그대를 처음에 볼 때 확실히 알아보았으니 이제는 그대와 함께 일생을 지내도 족히 처자의 도리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75]

방관주와 영혜빙이 혼사를 치른 날 밤, 영혜빙은 방관주에게 여성임을 눈치 채고

74) 「方翰林傳」, 29~30쪽.
75) 「方翰林傳」, 33~34쪽.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있었다고 말하며, 그 사실을 자신에게 밝히면 죽을 때까지 도리를 저버리지 않겠다고 말한다. 방관주는 사실을 밝히고 인륜을 끊은 것에 대한 죄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며 정체를 누설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한다. 영혜빙은 처음부터 방관주가 여성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생을 함께 하는 동안 아내로서의 도리를 잃지 않겠다고 말하며 두 사람은 서로 知己가 되었다. 영혜빙은 총명한 여성으로 단번에 방관주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방관주가 전쟁을 자원 출전하게 되면서 離別詩를 통해 서로에 대한 애정을 한번 더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방관주는 영혜빙과의 이별을 슬퍼하며 이별시를 읊게 된다. 이별시에서 "오늘 아침 隔年의 이별을 하니, 슬프고 연연한 마음이 머물도다."[76]의 시구는 방관주가 영혜빙과의 이별에 대한 슬픔과 애틋한 그리움으로 자신의 애정을 표현하였다. 영혜빙은 "열세 살에 서로 좇음이 있으니, 두 사람이 마음을 서로 비추었도다."[77]라는 和答의 시를 지으며 서로 처음 만나 혼인을 하고 애정을 확인하던 때를 회상하며, 공을 이루고 고국으로 無事歸還하여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표현하였다.

『玉樓夢』의 강남홍은 양창곡을 보고 한 눈에 자신의 知己임을 알았지만, 기녀라는 천한 신분으로 인해 양창곡과의 결연을 회피하려고 한다. 그러나 양창곡의 文才와 志操를 시험한 뒤 가연을 맺게 된다. 강남홍은 기녀이라는 천한 신분으로 양창곡의 첩이 되지만, 첩으로서 양창곡을 신의와 애정으로 섬기고, 한 가문의 며느리로서 시부모님을 공경하여 모시며 집안의 대소사를 주관하고, 처와 첩의 갈등까지도 해결하게 된다.

강남홍과 양창곡의 결연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항주성 돌아들면
큰길가 기생집 몇 군데런가.
문 앞에 벽도화
우물가에 어지러이 피어 있고
담장 머리로 누각 솟아

76) 시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名爲夫婦有, 胸中見知己, 今朝隔年別, 哀憐戀心守." (「方翰林傳」, 54쪽.)
77) 시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十三相從有, 兩人相心照, 賢友爲國忠, 離別千里去, 僧雁北天飛, 雙燕報佳節, 願君成功爾, 立功故國回." (「方翰林傳」, 55쪽.)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강남의 풍월이 분명할지니,
이곳에서 아이 부르면 연옥이가 나오리이다.[78]

강남홍이 壓江亭 놀이에서 양창곡이 지은 시를 보고 감탄하며 이런 '수재는 곤란할 지경에 빠질게 분명하다'라고 생각하여 양창곡에게 달아나라는 뜻의 시를 지어 노래하였다. 그러나 시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양창곡에게 자신의 집을 가르쳐 주며 다시 만나기를 기약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강남홍이 양창곡을 다시 만자고자 하는 것은 양창곡이 지은 시를 보고 감탄하여 자신의 平生知己로서 여길 만한 인물이라 생각하고, 시험하여 緣을 맺고자 하는 것이었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다.
"홍랑은 둘도 없는 國色이다. 말투가 너무도 사랑스러워 몰래 아름다운 약속을 맺은 것이다. 나 또한 대장부의 마음이 있다. 어찌 그리 은근한 정을 저버릴 수 있으랴. 지금 즉시 가는 게 옳다."[79]

양창곡은 강남홍이 자신에 대한 마음을 집을 가르쳐주는 노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양창곡은 강남홍을 찾아가려고 하지만 초행길인데다 그 전에 도적을 만나 노잣돈을 다 잃어 갈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양창곡은 대장부의 마음으로써 그 은근한 정을 저버릴 수 없다며 찾아가게 된다. 이러한 양창곡의 태도는 강남홍에 대한 마음이 크고 간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가 여러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양공자를 바쁘게 대면하였기에 그 겉모습과 문장은 대략 알지만 그 언행이나 지조는 알지 못한다. 내가 평생을 의탁하려 하지만 갑작스레 몸을 허락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내 마땅히 일시적인 방법으로 그의 마음을 시험해 봐야겠구나.[80]

---

78) "回入杭州城, 大道靑樓幾處, 門前碧桃花, 井上亂開, 牆頭樓閣, 江南風月分明, 此處呼兒來蓮玉." (『玉樓夢』, 31쪽; 『옥루몽』1, 52쪽.)
79) "良久曰: '紅無雙國色, 辭氣極嬌, 暗結佳約. 吾亦丈夫之心, 豈可負其慇懃之情. 今卽往訪, 可也.'"(『玉樓夢』, 34쪽; 『옥루몽』1, 59쪽.)
80) "吾忽忽對公子於衆人之席, 略知其容貌文章, 未知其言行志操. 將欲托百年, 難可遽然許身矣. 吾當用一時之權, 更試其心."(『玉樓夢』, 39쪽; 『옥루몽』1, 69쪽.)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강남홍은 비록 자신이 천한 기녀 신분일지라도 자신의 知己가 될 남자가 아니면 몸을 허락하고 싶지 않아했으며, 志操에 있어서만큼은 지키고자하는 마음이 컸었다. 그런데 양창곡을 보자 평생 의탁할 만한 지기로 느끼게 된다. 그러나 양창곡의 겉모습과 문장에 대해서는 알지만, 그 언행과 지조 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하여 자신의 몸을 허락하자고 하였다.

> "바다와 산에 맹세를 하여 한 분께 이 몸을 의탁하고자 鐘鼓琴瑟 같은 화목한 정으로 백년을 함께 즐기고 싶습니다. 이제 공자께서는 대장부 한마디 말의 귀중함을 아까지 않으신다면, 첩 또한 십 년 동안 청루 생활에서 지키며 고생했던 한 조각 마음으로 평생의 소원을 이루어볼까 합니다."
>
> 강남홍의 말투는 슬픈 빛을 띠고 얼굴색은 강개했다. 양창곡은 그녀 앞으로 가서 손을 잡고 말했다.
>
> "내 비록 호탕한 남자이지만 옛 책을 읽어서 대략 신의를 아오. 어찌 꽃이나 탐하는 미친 나비 같은 무정한 짓을 하여 오월에도 서리가 내리는 원한을 품게 할 마음이 있겠소?"
>
> (…) 강남홍이 비단옷을 벗자 옥 같은 팔뚝에 鶯血 한 점이 촛불 아래 선명히 드러나매, 동풍에 날리는 복숭아꽃이 봄눈 위에 날려 떨어지는 듯, 바다 위 붉은 해가 구름 사이로 솟아오르는 듯하였다.[81]

강남홍은 남장을 하고 양창곡을 속여 그 지조를 알아본 것에 대해 사죄를 하고 자신의 몸을 의탁하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하였다. 양창곡 또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강남홍의 마음을 받아들이며 平生知己를 약속하게 된다. 양창곡은 강남홍의 팔뚝에 있는 앵혈을 보고 기녀의 몸으로 규중 여인의 정절과 고요한 마음을 지키고 있었던 것에 깜짝 놀라며 더욱 반하게 되었다. 이 후 양창곡은 과거 시험으로 인하여 강남홍과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이별하게 된다.

> 어느 날 그녀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
> '내 이미 윤사자님의 따님을 그 분께 천거했지 공자께서는 신의가 있는 남자라. 아마도 그 말을 잊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렇다면 윤소저는 나와 평생 괴로움과 즐거움을 함

81) "'欲以海誓山盟, 依託一人, 鐘鼓琴瑟, 偕樂百年. 今公子, 不惜一言之重則, 妾又以十年靑樓之一片苦心, 欲遂平生宿願.' 言畢, 辭氣悽挽, 顔色慷慨, 公子近前握手曰: '吾雖豪蕩男子, 讀古書, 畧知信義, 豈效貪花狂蝶無情之態, 以負五月飛霜含寃之意?'…紅娘脫羅衫, 玉腕露出, 一點鶯血, 分明於燭下, 東風桃花, 飛落春雪, 海上紅日, 聳出雲間."(『玉樓夢』, 46쪽; 『옥루몽』1, 84~86쪽.)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께 할 분이다. 내 어찌 먼저 두터운 정을 붙이지 않겠는가.'[82]

강남홍은 양창곡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 적당한 배우자로 윤소저를 薦擧하게 된다. 자신이 두 사람을 천거한 일을 잊지 않고, 분명 맺어질 것이라 확신하며 윤소저를 찾아가 정을 쌓기 위해 노력한다. 이 후 양창곡과 윤소저는 혼인하게 된다. 강남홍은 양창곡의 첩임에도 불구하고 윤소저를 천거하며 자신이 먼저 찾아가 정을 쌓으려는 속 깊은 생각을 하는 넓은 마음을 지닌 따뜻한 여성이다. 또한 이러한 행동들은 강남홍이 양창곡에 대한 사랑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연남의 楊秀才가 강남의 風月主人에게 편지를 보내노라. 나는 옥련봉 아래의 보잘 것 없는 백면서생이요. 낭자는 강남 가운데 가장 번화한 청루의 歌姬입니다.

(…) 西湖와 錢塘江의 아름다운 풍경과 굽어진 골목에 있는 청루에서 마음껏 노닐던 자취가 눈앞에 삼삼하여 공연히 남쪽 하늘을 바라보면서 처량하고 쓸쓸하게 내 마음을 녹이는 애를 끓고 있소.[83]

양창곡이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강남홍과 헤어진 후, 그녀를 그리워하며 쓴 편지의 일부 내용이다. 양창곡은 자신을 백면서생이라 표현하고 강남홍을 歌姬라 표현하였다. 이런 표현은 양창곡에게 있어 자신의 존재를 낮추고 강남홍의 존재를 높이면서 자신에게 강남홍은 높은 위치에 있으며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또 강남홍과 함께 거닐던 장소와 추억을 회상하며, 강남홍에 대한 애끓는 자신의 심정을 고백하는 마음을 담아 글로 표현한 것이다.

'유유한 푸른 하늘이시여, 저를 이 세상에 낳을 적에 처지를 미천하게 하셨으면서 뛰어난 재주를 주시었습니다. 넓고 넓은 천지에 보잘 것 없는 이 몸을 용납할 곳이 없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맑은 강 물고기 뱃속의 굴원을 그 누가 찾겠습니까? 바라건대 제가 죽은 뒤 이 몸을 떠오르게 하지 마시고, 외로운 혼백이 깨끗한 땅에서 노닐게 해주소서.'[84]

---

82) "一日自思曰: '吾己薦尹刺史之小嬌, 公子有信男, 庶幾不忘矣. 然則尹小姐, 與我百年同苦樂之人, 吾豈不先訂厚誼哉.'"(『玉樓夢』, 49쪽; 『옥루몽』1, 90~91쪽.)

83) "汝南楊秀才, 付書於江南風月主人. 我玉蓮峰下, 踈拙之白面書生. 娘江南中熱鬧之青樓佳姬.…西湖錢塘, 佳麗之景, 曲房青樓, 遨遊之跡, 森森眼前, 空望南天而, 踽凉惆悵, 消魂斷腸而已, 蒼頭."(『玉樓夢』, 51쪽; 『옥루몽』1, 94~95쪽.)

84) "悠悠蒼天, 生紅之時, 旣使處地微賤, 又令稟賦非常, 廣濶天地, 無容微軀之地, 何故也. 淸江魚腹, 誰尋屈三閭, 唯伏望妾死之後, 莫拯身體, 使孤魂. 遊於操潔之地."(『玉樓夢』, 57~58쪽; 『옥루몽』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소주자사 황여옥은 압강정 놀이에서 시를 지을 때, 강남홍에게 반하여 그녀의 몸을 몰래 취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 계획이 실패하자, 전당호의 뱃놀이를 기회로 삼아 그 뜻을 이루고자 하였다. 그런 소주자사 황여옥의 계략을 눈치 챈 강남홍은 자신은 知己가 있는 몸으로 함부로 할 수 없기에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그것은 전당호에 投身自殺하여 자신의 몸을 지키는 것이었다. 위의 인용문은 강남홍이 전당호에 投身하기 직전에 자신의 마음을 속으로 말하는 내용이다. 강남홍은 자신의 누추한 몸까지 떠오르게 하지 말아달라며, 그 누추한 몸조차 외로이 지내길 바랐다. 이것은 양창곡 이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했던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강남홍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양창곡에 대한 마음의 信義를 지키려했던 것이다. 강남홍이 전당호에 投身하는 것을 본 윤소저는 孫三娘에게 강남홍을 구출할 것을 부탁하여 살아나게 된다.

> 양창곡이 묵묵히 한참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
> "홍랑아, 네 죽어서 영혼이 왔느냐, 살아서 진짜 얼굴로 왔느냐? 나는 네가 죽었다고 알 뿐 살아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구나."
>
> 강남홍 역시 울음을 머금고 흐느끼면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
> "첩이 상공의 사랑과 보살핌을 입어 물속의 원혼 도는 것을 면하고, 만 리 외딴 지역에서 다시 오래도록 사모하던 모습을 뵙게 되었습니다. 가슴속 끝없는 말을 창졸간에 다할 수가 없습니다. 좌우의 이목이 번거로워 첩의 모습을 노출시키기가 두렵습니다."[85]

양창곡은 강남홍이 일전에 전당호에서 投身自殺하여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였다. 양창곡은 강남홍이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강남홍이 백운도사의 부탁으로 남만 왕 나탁을 위해 적국인 양창곡과 전쟁에서 決鬪를하게 된다. 결투를 하던 중 서로 목소리가 귀에 익어 확인한 후 깜짝 놀라 결투를 중지하게 된다. 둘은 몰래 밤에 만날 것을 약속한 후 재회하여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다. 재회를 통해 강남홍은 양창곡에게 곁에 머물고 싶다며 세 가지의 약속을 청한다. 첫째는 군대를 돌리는 날까지 첩을 가까이 하지 말 것, 둘째는 첩의 종적을 감추고

1, 109쪽.)

85) "元帥默默良久曰: '紅娘, 汝死而靈魂來耶, 生而眞面來耶? 我但知其死, 不信其生.' 紅娘亦是含泣嗚咽, 不能成言曰: '妾夢相公之愛恤, 以免水中冤魂, 萬里絶域, 復見久慕之容光, 胸中無窮之言, 不可倉卒而盡也. 左右耳目煩多, 但恐露出妾之行色.'"(『玉樓夢』, 154~155쪽; 『옥루몽』2, 35쪽.)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장수들에게 누설하지 말 것, 셋째는 남방지역을 평정하신 뒤에 나탁을 죽이지 말고 왕의 칭호를 存續하게하여 소첩의 사부님이 부탁하신 것을 저버리지 말 것 등이다.[86] 이 약속을 양창곡이 받아들이며 함께 할 것을 허락하였다.

> '나는 일개 여자로 부모친척도 없는 신세다. 살고 죽은 일, 영광과 욕됨이 전적으로 이 분에게 달려 있다. 구구하게 살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온 것도, 죽는 게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분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다. 화살과 돌과 바람과 먼지 가득한 전쟁터에서 온갖 고초를 겪은 것도 내가 공훈에 뜻을 두었던 것이 아니라 또한 이 분을 위해서였다. 그런데 이 분께서 만약 불행한 일을 맞게 된다면 나라의 安危를 내가 어찌 알겠으며, 삼군의 진격과 후퇴를 내가 어찌 살필 것인가. 내가 마땅히 먼저 죽어서 온갖 일에 간섭을 하지 않아야겠다.'[87]

양창곡은 잦은 전쟁으로 인해 두통과 현기증이 매우 심해져 혼절하게 되었다. 양창곡에게 화기를 가라앉히는 약제를 사용하였지만, 증상은 날이 갈수록 점점 악화되어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러자 양창곡은 강남홍에게 나라와 부모님을 부탁하는 편지를 쓰고 또 혼절하였다. 이러한 양창곡의 모습을 본 강남홍은 자신이 죽고 사는 일과 나라의 안위를 위하여 전쟁에 나간 일은 모두 양창곡을 위한 일이었다며, 양창곡에 대한 걱정과 애정을 드러내고 있는 대목이다. 강남홍은 목숨과도 같은 삶의 이유가 양창곡이었기 때문에 그런 양창곡을 잃을까 두려워 자신이 먼저 죽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양창곡에 대한 강남홍의 애틋한 사랑과 지조를 느낄 수 있었다.

> '내일 다시 오계동으로 출전하면 필시 우리가 함께 가게 될 것이다. 연약한 몸으로 연일 고생을 하고 있지만 사실 불안하다. 내가 이틈을 타서 놀려주고, 미안한 빛을 보이면서 골짜기 안에 머무르게 하여 몸을 조섭하도록 해야지.'[88]

강남홍 또한 잦은 전쟁으로 몸이 많이 쇠약해졌다. 양창곡은 강남홍을 걱정하여

---

86) 김풍기, 『옥루몽』1, 그린비, 2006, 37쪽.
87) "我以一個女子, 無父母親戚, 死生榮辱, 依於都督. 區區偸生, 至于今日, 不是畏死, 爲楊都督而然也. 矢石風塵, 備嘗苦楚, 非意功勳, 亦爲都督. 都督今若不幸, 則國家安危, 吾何知之, 三軍進退, 吾何察之. 我當先死, 不干萬事."(『玉樓夢』, 220쪽; 『옥루몽』2, 173쪽.)
88) "明日, 更出戰于五溪洞則紅, 必欲同去矣. 以孱弱姿質, 連日勞力, 實是不安. 吾當乘此籠絡, 示其未安之氣色, 留置於洞中, 使之調攝."(『玉樓夢』, 233쪽; 『옥루몽』2, 193쪽.)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전쟁에 출전하지 못하게 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러던 중 술자리에서 사소한 일로 서로의 감정이 틀어지자, 양창곡은 그것을 빌미로 강남홍을 전쟁에 출전하지 못하게 하여 몸을 조섭시키기로 하였다. 강남홍에 대한 양창곡의 애정과 사랑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매일 같이 일어나는 전쟁 속에서 몸을 사리지 않는 강남홍을 걱정하고 아끼는 양창곡의 마음을 알 수 있다.

> 이때 양창곡과 홍혼탈은 이불을 함께 덮고 잠을 청하니, 琴瑟이 和樂하고 애틋한 정이 전쟁터의 지루한 근심마저 잊게 하는 것이었다. 홍혼탈은 자연히 노곤해져서 봄꿈으로 몽롱하였다.[89]

양창곡과 강남홍은 재회하여 여러 번의 전쟁에 대해 상의하고 출전하였지만, 함께 잠을 청하는 일은 없었다. 그 동안 서로의 애틋한 사랑을 확인함으로써 양창곡은 강남홍을 장군이 아닌 사랑하는 여인으로 생각하고 대하였음을 알 수 있다.

> 홍혼탈이 양창곡에게 아뢰었다.
> “제가 벽성선과 아직 서로 만나본 적은 없지만, 서로 마음을 알아주는 것은 형제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이때를 틈타 한번 놀려주어 마음을 풀어주고 싶습니다.”[90]

양창곡의 두 번째 부인인 황소저는 벽성선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누명을 씌우고 쫓아낸 뒤, 죽이려고 하였다. 그러나 첩인 강남홍은 벽성선을 형제라고 표현하며 먼저 따뜻하게 품어줌으로써 양창곡의 뜻을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넓은 품성을 지닌 여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양현이 부인에게 말했다.
> “예부터 美人薄命리하지만, 우리 홍랑은 절세미인으로 반드시 장수를 누릴 것이오. 여자가 장군이 되었다 해서 살기가 등등하지나 않을까 의심했었소. 그런데 지금 보니 유순하고 화목한 태도가 이렇게 분명하니, 어찌 우리 집안의 행복이 아니겠소?”[91]

---

89) “此時都督與元師, 連衾而睡, 琴瑟和樂, 戀戀之情, 忘却皷鼙支離之憂. 元師自然困惱, 春睡朦朧.”(『玉樓夢』, 237쪽; 『옥루몽』2, 200쪽.)

90) “紅司馬告都督曰: ‘妾與仙娘, 未有相面, 瓦相知心, 無異兄弟. 今乘此時, 欲一戲而敍情.’”(『玉樓夢』, 254쪽; 『옥루몽』2, 236쪽.)

91) “員外對夫人曰: ‘自古雖云紅顔薄命, 紅以絶世姿色, 必享壽多矣. 女子爲將, 疑其有殺氣唐突. 今見彼柔順和吉之態, 如是現著, 豈非吾家之幸福.’”(『玉樓夢』, 262쪽; 『옥루몽』2, 251쪽.)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양창곡의 아버지인 양현은 강남홍을 만난 후 부인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당시의 여성들은 집안에서 남성의 내조를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었다. 며느리가 장군이라고 함은 먼저 경계하고 받아들여지기 힘들 상황이었다. 그런데 양현은 집안의 행복이라고 표현함으로써 강남홍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드러냈다. 강남홍은 장군의 위치뿐 아니라 며느리의 위치도 인정받은 여성이라고 할 수 있다.

> 강남홍은 매서운 협객의 풍모와 충의로운 마음으로 자기 행색의 구차함을 돌아보지 않고 하인으로 분장하여 자진하여 남편의 뒤를 따른 이후로, 낮이면 몸소 양창곡의 생활과 음식을 받들었고 밤이면 직접 잠자리와 의복을 담당하였다. 양창곡의 물 한 모금 발걸음 하나에도 그림자처럼 따라다녀 전혀 떨어지는 일이 없었다.[92]

강남홍은 양창곡이 나라일로 집안을 떠나 생활할 때도 항상 뒤를 따르며, 잠자이롸 의복을 담당하는 등 아내로써의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자신의 지창과 돌봄을 뒤로한 채 여성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아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에서 남편을 귀중히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양창곡은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다.
> 강남홍이 대답하였다.
> “다름이 아니라 상공께서 처리하신 일에 자못 의아스러운 점이 있기 때문에 자연히 즐겁지가 않습니다. 상공께서는 벽성선을 小室의 반열에 둔 것이 벌써 몇 년이 되었습니다. 그 지조와 자색을 사랑함이 지극하긴 하지만, 끝내 팔뚝에 붉은 점이 남아 있어서 부부의 정이 오히려 흡족하지 않습니다. 만약 다른 이유가 없다면 이는 제가 부끄러워해야 할 점입니다.”[93]

강남홍은 벽성선의 팔뚝에 있는 앵혈을 안쓰럽게 여겨 양창곡에게 그러한 연유를 물으며 질책하고 있다. 양창곡이 자신 뿐 아니라 처와 첩들에게 소홀한 점을 보지 못하고 또 원망을 쌓게 될까봐 걱정하는 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

---

92) “鸞城以烈俠之風, 忠義之心, 不顧行色之苟且, 扮作家僮, 自從家夫之後, 晝則親奉起居飮食, 夜則躬執衽席衣服. 燕王之一匙水一移步, 如影隨形, 須臾不離.”(『玉樓夢』, 293쪽; 『옥루몽』3, 71쪽.)

93) “燕王問其故對曰: ‘無他, 相公處事, 頗有疑訝之端故, 自然不樂. 相公置仙娘於小室之列, 今幾年矣. 愛其持操姿色極矣, 終有臂上紅點, 夫婦之情, 尙不足.洽. 若無他故則此, 妾之所羞也.’”(『玉樓夢』, 417쪽; 『옥루몽』4, 67쪽.)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리고 그러한 일들로 인해 처와 첩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어 서로 義가 상하게 될까 염려하는 마음이 있다. 강남홍은 처와 첩들의 좋은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강남홍이 웃으며 말했다.

"이는 천고의 아름다운 이야깃거리입니다. 妬忌하는 마음은 사람마다 모두 가지고 있으나, 잘못을 후회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제 부인께서 크게 겸연쩍어 하시어 기색이 예전 같지 않고 세상에 대한 생각이 담박하여 추자동의 각성한 세존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梅雪堂 위에서 청정한 마음을 본받고자 하시니, 어찌 지나친 일이 아니겠습니까?"[94]

양창곡의 어머니인 허부인이 여러 며느리를 데리고 후원에 올라가고자 하여 윤소저, 황소저, 벽성선, 강남홍이 한 곳에 모였다. 황소저와 강남홍은 처음 인사를 나누는 자리였다. 황소저가 자신이 벽성선에게 지은 잘못으로 그 동안 인사를 나누지 못하였다고 말하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 강남홍은 황소저에게 넓은 마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위의 인용과 같이 말하였다. 한 남편을 모시는 아내들로서 서로 妬忌하는 마음을 없애고 잘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일지련이 얼굴 가득 붉은 빛을 띠더니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다.

"낭자께서 이미 제 마음을 아신다고 하면서 다시 제게 물으시다니, 어찌 저를 이리도 핍박하시는 겁니까?"

강남홍이 웃으면서 말했다.

"그렇다면 내가 낭자의 생각을 알겠소. 내가 장차 연왕께 천거하려하니, 그대 뜻은 어떻소?"[95]

강남홍은 일지련이 부모님과 이별하고 양창곡에 대한 마음 하나로 만 리 외딴 곳에까지 온 것을 안타깝게 여겨, 혼인을 시켜주고자 일지련의 마음을 다시 한 번 확인 하는 내용이다. 강남홍은 자신 뿐 아니라 다른 여성의 감정까지도 파악하고

94) "鸞城笑曰: '此千古美事. 妬忌之心, 人皆有之, 悔過人人之所不能也. 今夫人慊然太甚, 氣色沮喪, 世念淡泊, 旣爲楸子洞中, 醒覺世尊 更欲效梅雪堂上, 淸淨之心, 豈不過度也.'"(『玉樓夢』, 435~436쪽; 『옥루몽』4, 100쪽.)

95) "蓮娘紅暈滿面, 俯首沉吟良久曰: '娘已知吾意, 更問于妾, 何若是相逼乎?' 鸞城笑曰: '然則吾知娘之所懷. 妾將欲薦於燕王, 娘意何如?'"(『玉樓夢』, 444쪽; 『옥루몽』4, 119~120쪽.)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안쓰럽게 여기며 해결하려는 여장부의 모습을 보인다. 강남홍의 적극적인 혼인 진행에 일지련은 양창곡의 마지막 첩이 된다.

> '賤妾 강남홍은 나이 열 여덟 살이요, 항주 사람입니다. 천첩 벽성성은 열 일곱 살이요, 강주 사람입니다. 천첩 일지련은 나이 열 다섯 살이요, 남방 사람입니다. 우리가 동시에 합장하고 향을 올리며 月光菩薩님께 축원하나이다. 우리 세 사람이 고향도 다르고 성도 다르지만 한마음으로 한 사람을 섬기면서 생사고락을 함께 할 것을 맹세합니다. 이후에 만약 다른 마음을 먹는 사람이 있다면 한 조각 밝은 달이 거울처럼 발게 비추실 것입니다.'[96]

일지련은 강남홍에게 부모님과 친척들을 이별하고 소식이 끊어진 상황에서 人倫大事인 혼인을 결정해야하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겠다고 한다. 강남홍 역시 자신도 부모님께서 길러주신 은혜를 모른다며, 우리 세 사람(강남홍, 벽성선, 일지련)의 처지가 비슷하고 같은 남편을 모시니 劉備, 關羽, 張飛의 세 사람과 같이 桃園結義를 모방하여 맹세하자고 제안하여 맹세하는 대목이다.

> "첩이 상공을 따라다니던 시절에는 굶고 배부르고 춥고 따뜻함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들이 비록 사사로운 일이긴 했으나 챙기는 것에 익숙지 않았지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단촐하고 검소한 음식과 낡은 옷이라도 여러 낭자와 함께 해야 합니다. 유념해주십시오."[97]

양창곡은 명예와 이익을 버리고 속세와 이별하며 부모님과 부인들을 데리고 청산백운으로 떠나 취성동에 자리를 잡았다. 강남홍이 난성부의 월급과 湯沐邑 3만 호의 식읍, 그리고 천자에게 하사 받은 전별금 황금 5천 일을 양창곡에게 관리해달라고 부탁한다. 강남홍은 양창곡에게 지금부터는 음식과 옷이 단출하고 검소하더라도 여러 낭자와 함께 하겠다며 부인들에 대한 애틋한 우정을 드러냈고 있다.

지금까지 네 작품의 애정의 조건과 부부관계에 대해 他意에 의한 결연과 自意에 의한 결연으로 나눠 살펴보았다. 「朴氏傳」의 박씨와 「洪桂月傳」의 홍계월은 他意에

---

96) "賤妾江南紅, 年十八歲, 杭州人. 賤妾碧城仙, 年十七歲, 江州人. 賤妾一枝蓮, 年十五歲, 南方人. 一時合掌焚香, 仰祝月光菩薩. 妾等三人, 雖各處各姓, 以一心事一人, 誓同死生苦樂. 此後若有異心者, 一片明月, 如鑑照臨."(『玉樓夢』, 446쪽; 『옥루몽』4, 124~125쪽.)

97) "鸞城曰: '妾從相公幾年, 飢飽寒暖, 一不干涉. 雖爲其私事, 猶多齟齬. 自今簞食瓢飲, 弊衣縕袍, 與諸娘共之, 以爲留念.'"(『玉樓夢』, 491~492쪽; 『옥루몽』4, 219쪽.)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의한 결연이었으며, 「方翰林傳」의 방관주와 『玉樓夢』의 강남홍은 自意에 의한 결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두 가지의 결연에는 모두 공통적으로 장애요소가 있었다. 「朴氏傳」의 박씨는 '추녀', 「洪桂月傳」의 홍계월은 '남성보다 우월한 여성', 「方翰林傳」의 방관주는 '동성결혼', 『玉樓夢』의 강남홍은 '첩'이라는 장애요소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요소들은 他意에 의한 결연과 自意에 의한 결연에서 다른 애정의 모습을 보였다. 他意에 의한 결연의 장애요소들은 부부관계에서의 애정에 시련과 혼란의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自意에 의한 결연은 애정에는 변함이 없고 신분에 따른 고민과 역경을 주었다. 이처럼 他意에 의한 결연은 애정을 극복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自意에 의한 결연은 신분을 극복하며 애정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朴氏傳」은 박씨가 절세미인으로 바뀌면서, 「洪桂月傳」은 홍계월이 여성의 주체성을 찾으면서 미완성된 부부의 모습에서 완성된 부부의 모습을 보였다. 「方翰林傳」은 방관주가 동성결혼을 하면서 미완성된 부부관계를 보였지만, 애정에는 지속적으로 완성된 모습을 보였다. 『玉樓夢』의 강남홍은 첩이라는 장애요소를 극복하고 부부의 완성된 모습을 보였다.

2. 여성의 正體性

조선시대의 남성과 여성의 역할은 확연하게 구분되었다. 남성은 사회적 활동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펼쳐 왔으며, 여성은 한 가정의 내조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실행해왔다. 이처럼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뚜렷하게 분담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영역이 아닌 부분은 참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여성영웅소설은 여성이 사회적 활동을 하며 남성의 역할을 참여하게 된다. 하지만 여성이 사회라는 공적 영역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여성이라는 신분을 숨기고 남장을 해야만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이러한 남장은 어릴 적부터 부모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남장에 익숙한 여성이 부모의 뜻을 따라 계속 남성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았다. 남장여성이 사회에서 인정받고 높은 직책에 오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여성임이 밝혀지게 된다. 대부분의 여성영웅소설에서의 남장여성의 정체가 밝혀지게 되면 결국 남성과 혼인을 이루게 된다. 어릴 적부터 남성의 역할에 익숙해진 여성이 혼인을 통해서 급격하게 여성의 삶을 살게 된다. 한 번도 겪지 않은 여성으로서의 역할이 혼란스러워지게 되고,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게 된다. 이러한 정체성 혼란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洪桂月傳」의 홍계월은 어릴 적부터 부모가 단명이 염려되어 남복을 입혀 남아로 지내게 했다. 5세에 將仕郎의 亂으로 인해 부모와 이별하고 여공의 도움으로 그의 아들 보국과 함께 동문수학하게 된다. 이때부터 홍계월은 여성의 삶이 아닌 평국이라는 이름으로 남성의 삶을 시작하고 자리매김하게 된다. 여성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도 없었을 뿐더러, 여성이라고 인식 시켜주고 그 삶을 배우며 살아가야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도 전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라는 인식 자체가 있었더라도 배우고 행동할 수 없었던 것이다. 사회에서 인정받고 남성보다 우월한 여성인 홍계월이 남성이지만 여성보다 못난 보국과의 가연을 맺음으로써 갈등이 시작된다. 홍계월은 사회적 위치와 가정의 위치 사이에서, 보국과 보국의 애첩 영춘과의 관계에서 주체의성 혼란을 겪게 된다.

홍계월의 정체성 혼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계월을 남복을 입혀 초당에 두고 글을 가르치니 一覽輒記라.
> 시랑이 차탄 왈,
> "네가 만일 남자 되었던들 우리 문호를 빛낼 것을 애닯도다."[98]

위의 인용문은 홍계월의 아버지인 홍시랑이 홍계월에게 남복을 입히고 글을 가르쳤더니 한 번 본 것을 모두 기억하한다. 그러자 홍계월이 남자였더라면 가문을 빛낼 것이라며 한탄하는 내용이다. 홍시랑이 홍계월에게 남복을 입히고 글을 가르치게 된 것은 홍계월이 자라면서 얼굴이 화려해지고 영민해지자, 단명할까 염려하여 곽도사를 찾아가 홍계월의 상을 보게 한 후였다. 곽도사는 홍계월의 상이 5세에 부모와 이별하고 18세에 다시 만나 公侯爵祿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 후로 홍시랑은 홍계월에게 남복을 입히고 글을 가르치며 남자로 성장하게 하였다. 홍계월은 부모의 뜻을 어기지 않고 남자의 삶을 살아가던 중 부모와 이별하게 되고, 여공의 도움으로 남성을 삶을 시작하게 되지만 자신이 여성이라는 사실은 밝히지 않는다.

> "소녀의 마음은 홀로 늙어 부모 슬하에 있삽다가 부모 만세 후에 죽어 다시 남자되어 공맹의 행실을 배우고자 하였삽더니 근본이 탄로하여 천자 하고 여차 하옵시니 부모 슬하에 다른 자식이 없어 悲懷를 품고 先塋 奉祠를 전할 곳이 없사오니 자식이 되어 부모 령을 어찌 거역하오며 천자의 하교를 어찌 거역하오리이까. 하교를 좇아 보국을 섬겨 여공의 은혜를 만분지일이나 갚사올까 하오니 부친은 이 사연으로 천자께 상

98) 「洪桂月傳」, 150쪽.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달하옵소서.”

하며 나루하고 남자 못됨을 한탄하더라.[99]

천자는 홍계월이 전쟁으로 인해 몸이 쇠약해지자, 어의에게 맥을 짚게 할 것을 요청하였고, 어의로부터 홍계월이 여성이라는 사실을 듣게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천자는 홀로 외롭게 지낼 홍계월에게 보국과의 중매를 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을 여공에게 전해들은 홍계월은 자신의 속사연을 털어 놓으며 용서를 구함과 동시에 자신이 남성으로 태어나지 못한 것에 한탄하게 된다. 홍계월이 남장을 하며 여성임을 밝히지 않은 것은 부모의 뜻을 절대 저버리지 않겠다는 것과 훗날 여자의 행실을 하다 부모를 다시 찾지 못하게 될까 두려워서였다. 홍계월은 자신의 정체가 밝혀지자 여공의 아들 보국과 원치 않은 가연을 맺게 되면서, 남장을 통해 익숙해진 사회적 남성의 역할을 버리고 여성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부감에 정체성 혼란을 느끼게 된다.

하직하고 본궁을 돌아올새 금덩을 타고 옹위하여 중문에 나올새 눈을 들어 영춘각을 바라보니 애첩 영춘이 난간에 걸터 앉았거늘 계월이 대로하여 덩을 머무르고 무사를 호령하여 영춘을 잡아내려 덩 앞에 꿇리고 호령 왈,

“네 중군의 勢로 교만방자하여 내 행차를 보고 감히 난간에 높이 걸터앉아 요동치 아니하여 네가 중군의 힘만 믿고 이같이 교만하니 너 같은 요망한 년을 어찌 살려두리오. 당당히 군법을 세우라.”

하고 무사를 호령하여,

“문밖에 내어 베라.”

하니 무사가 영을 듣고 달려 들어 영춘을 잡아 내려 베니 군졸과 시비 등이 황겁하여 바로 보지 못하더라. 이적에 보국이 영춘을 죽였다는 말을 듣고 분함을 이기지 못하였다.

(…) 그 후로부터는 계월의 방에 들지 아니하니 계월이 생각하되,

‘영춘의 혐의로 아니 오는 도다. 뉘라서 보국을 남자라 하리오.’

여자에도 비치 못하고 남자 못된 결분하여 눈물을 흘리며 세월을 보내더라.[100]

홍계월의 정체성 혼란과 여성의식은 남편인 보국과의 혼인으로 시작하여 보국의

99) 「洪桂月傳」, 180~181쪽.
100) 「洪桂月傳」, 184쪽.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애첩인 영춘을 살해하면서 정점에 달한다. 필자는 살해한 이유를 첫 번째로 단순한 영춘의 교만한 태도, 두 번째로 상하관계에 있는 보국의 애첩에게 느끼는 시기와 질투, 세 번째로 첩에게 모욕을 당한 수치심 때문이라고 본다. 홍계월은 그 후에 '영춘의 혐의로 아니 오는 도다'라고 말한 부분이 있다. 이 말은 여성으로서 남편인 보국을 기다리는 것이다. 홍계월은 스스로 여성의 모습을 보이며 인식하기 시작하고 간접적 행동으로 드러내는 시작한 것이다.

> 사관이 나와 명초하신 명을 전하거늘 평국이 대경하여 급히 여복을 벗고 조복으로 사관을 따라 榻前에 복지하오니 천자 대희 왈,
> "경이 규중에 처한 고로 오래 보지 못하여 주야 사모하더니 이제 경을 보매 기쁘기 측량없거니와 짐이 덕이 없어 지금 오, 초 양국이 反하여 호주 북지를 항복받고 남관을 해쳐 황성을 범코자 한다 하니 경은 自斷 출사하여 사직을 안보케 하라."[101]

천자는 규중의 몸이 된 홍계월이 오·초 양난의 전쟁에 출전하여 호주 북지의 항복과 황성을 범하려고 하였던 頑怠함을 처단하고 오길 원하였다. 천자는 홍계월에게 스스로 출전할 것을 결정하게 하였지만, 천자의 명을 어길 수 없던 홍계월은 전쟁에 출전하게 된다. 이처럼 규중의 몸이 되었지만, 언제든 나라에서 원하면 남성의 역할을 수행해야했다. 그렇기 때문에 홍계월은 자신이 규중의 몸으로써 정성을 다해야할지, 나라의 몸으로써 충성을 다해야할지 혼란을 겪기 시작한다.

> 보국으로 좌승상을 봉하시고 평국으로 대사마 대장군 위왕 직첩을 주시고 못내 기뻐하시더라. 평국이 여쭈오되,
> "신첩이 외람하와 폐하의 넓으신 덕택으로 봉작을 받사와 벼슬이 宰列에 있사옵고 이제 전하를 평정하였사오니 이는 다 폐하의 興業이 외륭하옵신 덕과 하해 같은 덕이 옵거늘 어찌 첩의 공이라 하오리이까. 하물며 친부모와 시모를 일었사오니 신첩이 팔자 기박하와 이러하오니 이제는 여자의 도리를 차려 부모 양위를 지키옵고자 하옵나이다."[102]

천자는 오·초 양난의 전쟁에서 승리한 홍계월에게 대사마 대장군 위왕의 직첩을 주고, 보국에게는 좌승상을 봉하셨다. 천자는 홍계월을 여성으로 인정하여 보국과

101) 「洪桂月傳」, 185쪽.
102) 「洪桂月傳」, 195쪽.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가연을 맺어준 중매자 이지만, 홍계월을 여성보다는 장군으로서 더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홍계월은 여성으로서 가정을 지키고 시부모님을 모시며 살아가겠다는 약속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 천자에게 이제는 여자의 도리를 차려 부모의 양위를 지키고 싶다고 말한다. 홍계월은 천자로부터 남성의 역할이 아닌 여성의 역할을 하며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의욕을 보였다.

「方翰林傳」의 방관주는 어릴 적부터 부모에 의해 남아의 옷을 입기 시작하였다. 방관주가 4세가 되던 해 스스로 남아의 옷을 입기를 원했고, 부모는 그 뜻을 존중하여 남복을 입혔다. 어릴 적부터 스스로 남복을 입고, 병서와 무예를 익히며 무의식적으로 여성임을 거부하게 된다. 방관주는 홍계월과 달리 여성임을 인식시켜주고 그 삶을 배워야 한다고 말해주는 부모와 유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며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방관주의 정체성 혼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방공 부부가 소저에게 붉은 비단옷과 색깔 있는 옷을 입으려고 하였으나 소저는 천성이 소탈하고 검소하여 삼베로 얽은 옷을 입으려고 하였다. 그래서 방공 부부는 딸의 뜻에 맞추어 소원대로 남자 옷을 지어 입히고 아직은 어렸으므로 女功을 가르치지는 않았다.[103]

방관주는 어릴 적부터 천성이 소탈하고 검소하여 화려한 여복보다는 남복을 입으려고 하였다. 부모는 그런 방관주의 의견을 존중하여 남복을 입히고 어리다는 이유로 여공을 가르치지 않으며, 시 짓는 법과 글 쓰는 법을 가르치며 남성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방관주는 자신의 성격과 부모의 가르침으로 인하여 무의식적으로 여성임을 거부하고 남성임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 부모가 방관주에게 길쌈과 바느질을 권하면 스스로 하지 않으니, 부모 또한 딸의 재주와 외모가 보통사람이 아니었으므로 싫어하는 것을 구태여 권하지 않았다. 여자 옷을 입히지 않고서 친척에게는 아들이라고 하였다.[104]

부모는 어릴 적부터 방관주에게 여공을 가르치지 않고 시와 글을 가르쳤기 때문

103) 「方翰林傳」, 16쪽.
104) 「方翰林傳」, 17쪽.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에, 방관주는 이미 길쌈과 바느질에 대한 흥이 없어진지 오래이며 배워야 하는 이유를 알지 못했다. 부모는 그것이 방관주의 뜻인 것처럼 길쌈과 바느질을 권하지 않았으며, 친인척들에게도 아들이라고 하였다. 방관주는 부모에 의해 자연스럽게 여공의 역할을 거부하고 남성의 역할을 당연시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스스로 시작된 남복이었지만 부모의 교육으로 인해 남성의 삶을 지향하게 된 것이다.

> 하루는 유모 주 유량이 소저를 모시고 말하다가 이에 고하였다.
> "이제 소저의 나이 아홉 살입니다. 閨房의 여자는 열 살이 되면 문밖을 나서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원컨대 공자는 돌이켜 생각하시고 우스운 행동을 그만 그치십시오. 나중을 어지럽게 하지 마셔서 돌아가신 부모님 영혼을 평안하게 하소서."[105]

유모는 방관주에게 여성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와 돌아가신 부모에 대한 평안을 위해 여성임을 강조하고 가르치려한다. 그러나 방관주는 부모의 뜻이라며 입신양명하여 부모의 後事를 빛낼 것이니 다른 사람에게 정체를 말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유모는 방관주의 강렬하고 엄숙한 모습에 더 이상 여공을 말하지 않았다. 방관주는 부모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결국 자신의 공적 영역에 대한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었다.

> 소저는 책 읽는 데에 몰두하여 혹 兵書도 보고 무예도 익히며 李白, 杜甫의 문장과 孫武와 吳起의 모략을 가슴속에 담았다.
> (…) 풍채는 버들 같고 봉황의 두 팔이 날 듯하니 진실로 하늘에서 귀양 온 신선 같았다. 이에 겸하여 文筆이 날로 발전해 陶淵明의 문장과 鍾繇와 王羲之의 필법을 압도하고 재주가 있다는 명성이 자자하여 온 고을에 모르는 사람이 없었으니 사람들이 공경하고 감탄하여 그 복록을 칭찬하였다.[106]

방관주는 여자의 도리를 무시하고, 더욱 책과 무예에 몰두하며 남성의 역할에 忠實 한다. 어릴 적에서 무의식적으로 남복을 입고 부모에 의해 배우게 되었으나, 자라면서 의식적으로 여성의 역할을 거부하고 남성의 역할을 받아들이며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한다. 방관주의 문장과 재주는 날로 발전하여 모르는 사람이 없었으며 공경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후 과거 시험에서도 임금이 그의 글재주를 보고

105) 「方翰林傳」, 17쪽.
106) 「方翰林傳」, 18~19쪽.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감탄하여 한림학사에 임명하게 된다.

안찰사가 다시 보니 별의 광채는 없고 옥 같은 아이가 놓여 있었다. 크게 놀라서 보니 그 아이가 난 지 몇 달은 되어 보였다. 눈썹과 눈이 비범하고 두 눈이 맑은 거울 같았다. 옥 같은 용모에는 해와 달이 정기가 어려 있었다.

안찰사가 크게 기뻐하며 말하였다.

"하늘이 나에게 주신 것이로다."[107]

방관주(안찰사)는 결혼으로 인해 영혜빙에게 자신의 정체가 밝혀지지만, 자신을 인정하고 知己로 받아들인 영혜빙으로 인해 정체성 혼란을 겪지 않는다. 그러나 낙성을 입양하여 키운 것을 시작으로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게 된다. 입양은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후사를 이어야 했으며, 영혜빙과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방관주는 자신이 후사를 이을 수 없는 여성임을 지속적으로 인식해 왔으며, 한 집안의 가장인 '남성'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생물학적 性측면과 사회학적 性측면에서 정체성 혼란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장여성으로 생물학적 性측면에서는 후사를 이을 수 없고, 사회학적 性측면에서 자신의 정체가 탄로 날까 늘 坐不安席한 상태였다.

승상이 보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였다.

"내 일개 아녀자로서 남자로 행세한 것이 이미 오래 되었으니 이제 천벌이 없으리오? 즐거움이 지나치면 슬픔이 오는 것이다. 한번 돌아가 상제께 조회하고 부모를 만나는 것이 소원이나 다만 부인이 나 때문에 인륜을 알지 못하고 공연히 청춘을 헛되이 마쳤으니 가련하구나. 저는 지극히 맑아 부부의 도를 괴롭게 여기는 사람이다. 서로 기대하여 劉關張이 한날에 죽지 않은 것을 낮게 여겼더니 이제 내가 죽으면 그 누구를 의지하리오? 가련하고 안타깝구나."

案席에 기대어 하는 끝을 바라보도 생각하며 남아가 못 된 것을 슬퍼하였다.[108]

방관주는 영혜빙이 자신 때문에 인륜을 알지 못하고, 청춘을 헛되이 보내게 한 것을 미안해하며 자신이 남자였으면 하는 생각을 보이고 있다. 방관주의 몸은 비록 여성이나 영혜빙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과 가정에서의 역할은 남성의 성향을 보

107) 「方翰林傳」, 41～42쪽.
108) 「方翰林傳」, 74쪽.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인다. 여기서 방관주는 女化爲男으로 인한 죄책감에서 남장모티브의 한계성을 보여준다.

> 임금이 말하였다.
> "경에게 무슨 所懷가 있는고?"
> 승상이 귀밑에 눈물이 가득한 채 오열하고 아뢰었다.
> "신은 본디 여자입니다. 부모가 일찍 죽어 어린 소견에 부모 사후가 없어질까 슬퍼하였습니다. 열두 살 에 전하께서 人才를 뽑으신다는 소식을 듣고 구경코자 나왔다가 폐하의 성은을 입어 오늘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러나 정체를 차마 아뢰지 못하고 또 영공의 핍박을 입어 부득이하게 혼인하였고, 영녀 또한 처음에 신을 알아보았으나 성품이 괴이하여 말을 내지 않고 한낱 知己 되어 바깥사람의 눈을 속인지 오래입니다. 오늘날 殃禍를 입어 黃泉에 가오니 품은 뜻을 올리나이다. 낙성은 신이 낳은 자식이 아닙니다. 하늘이 정해주신 바요 신이 양육한 아들이니 죽기에 이르러 마침내 폐하를 속이지 못해 실상을 고하옵니다. 또한 신은 규방의 여자로서 몸을 명백하게 드러내 禮法을 어겼습니다. 감히 팔뚝의 朱標를 뵈어 임금 속인 죄를 청하나이다."[109]

방관주는 시일이 갈수록 입맛이 없어지고 몸이 수척해지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자 자신의 죄를 임금께 고하기로 한다. 임금은 여자의 약한 몸으로 지략과 용맹이 대단하다고 놀라며 기특해 하였다. 그러나 방관주는 임금에게 자신의 죄를 모두 고한 후, 병세가 악화되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방관주는 결국 남성의 삶을 포기하지 못한 채, 여성임을 밝히자마자 죽게 된다.

『玉樓夢』의 강남홍이 기녀의 신분일 때, 소주자사 황여옥이 전당호의 뱃놀이에서 자신의 몸을 몰래 취하려는 계략을 눈치 채고, 전당호에 자신의 몸을 맡기게 된다. 그 후 이역 땅을 떠돌다 산속에 머물게 되면서 백운도사에게 용병지계 와 술법을 배우게 되고 전쟁에도 출전하게 된다. 전쟁에서 양창곡과 재회하게 되자, 강남홍은 양창곡을 따라 다니고 함께 전쟁에 출전하며 그의 곁을 지키게 된다. 이후 천자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인정받게 되면서 양창곡을 따라 전쟁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강남홍의 정체성 혼란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09) 「方翰林傳」, 77~78쪽.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홍혼탈이 말했다.

"신첩은 아녀자라. 변복을 하고 운남을 간 것도 남편을 위해서였고, 바람 먼지 가득한 전쟁터를 부빈 것도 남편을 따른 것이옵니다. 시대의 운수가 불행하고 나라에 일이 많아 여자의 행실로 규방을 지키지 못하고 폐하 안전을 지척에서 이처럼 자주 배알하오니 진실로 부끄럽고 당돌한 일이옵니다."110)

천자가 강남홍이 만 리 외딴 곳에서 하인복장으로 다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잘못이라고 말한다. 그러자 강남홍은 모든 일이 남편을 위한 일이며, 여자로서 규방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부끄러워한다. 강남홍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은 것이 아니라, 남편을 곁에서 지키고 돌보기 위해 남장여성으로 생활한 것이다. 이러한 생활이 가능했던 것은 그 동안 장군으로서 남성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네 작품의 여성의 정체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洪桂月傳」의 홍계월과 「方翰林傳」의 방관주가 남성의 역할과 여성의 역할에서 정체성 혼란을 느꼈으며, 『玉樓夢』의 강남홍과 「朴氏傳」의 박씨는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지 않았다. 「洪桂月傳」의 홍계월은 어릴 적부터 남아로 지내면서 여성의 역할을 배우지 못했다.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홍계월은 결혼을 하면서 여성으로서의 삶을 배우고 시작하려 하지만, 천자와 나라의 부름에 남성의 역할을 지속하게 되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보국의 애첩 영춘을 살해하면서 여성으로서 질투와 시기를 느끼고 여성을 인식하기 시작하며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느끼게 된다. 「方翰林傳」의 방관주는 동성결혼을 하면서 남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던 중 입양을 하게 된다. 방관주는 입양을 통해 자신이 후사를 이을 수 없는 여성임과 동시에 남성이 될 수 없음을 느끼며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느끼게 된다.

「洪桂月傳」의 홍계월은 가정에서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배우고 살아가려는 모습을 보이며 남성의 역할을 보이지 않았지만, 전쟁의 참여와 보국의 애첩 영춘을 통해 여성의 정체성에 혼란을 느꼈다. 그리고 「方翰林傳」의 방관주는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남성의 역할을 하지만, 후사로 인해 자신이 여성임을 인식하고 거부하게 되면서 여성의 정체성에 혼란을 느꼈다. 그러나 『玉樓夢』의 강남홍과 「朴氏傳」의 박씨는 가정에서 남성의 역할을 보이지 않았으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도 느끼지 않았다.

---

110) "鸞城曰: '臣妾兒女子. 變服雲南, 爲家夫, 馳馳風塵, 從家夫. 時運不幸, 國家多事, 女子有行, 不守閨門, 天顔咫尺, 如是頻謁, 實所慚愧唐突.'"(『옥루몽』, 357쪽; 『玉樓夢』3, 206쪽.)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Ⅳ.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영웅소설 『玉樓夢』·「朴氏傳」·「洪桂月傳」·「方翰林傳」의 네 작품을 대상으로 삼아, 『玉樓夢』의 강남홍과 「朴氏傳」·「洪桂月傳」·「方翰林傳」의 여주인공을 비교함으로써 여성영웅소설 주인공의 영웅적인 형상과 여성적인 형상을 살피는 것이다. 각 작품에서 여주인공이 어떤 모습으로 영웅성과 여성성이 형상화 되었는지, 그 형상화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주인공의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를 검토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피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먼저 전쟁 수행 과정에서의 영웅 형상을 고찰하였다. 영웅 형상을 크게 예지력과 도술 능력의 幕後 조력자, 남성보다 우월한 武勇을 지닌 여장군, 戰術 智略과 협상 능력을 지닌 여장군 이 세 가지 기준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유사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전쟁 수행 과정에서 「朴氏傳」·「洪桂月傳」·「方翰林傳」·『玉樓夢』의 여성영웅들이 남성보다 우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朴氏傳」의 박씨는 꿈, 별자리, 천기 등의 암시를 통한 예지력과 풍운변화지술, 그리고 다양한 도술 능력을, 「洪桂月傳」의 홍계월은 천문을 통한 예지력과 풍운변화지술, 그리고 검술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그리고 「方翰林傳」의 방관주는 검술과 진법, 그리고 활쏘기의 능력을, 『玉樓夢』의 강남홍은 예측에 가까운 예지력과 풍운변화지술을 비롯한 둔갑술 등의 다양한 술법과 검술, 진법, 활쏘기의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여성영웅들의 예지력과 도술, 그리고 무예 능력은 남성을 능가할 정도로 출중하였으며, 남장을 하고 직접 전쟁에 참여하여 해결하는 직접적 해결방식의 여성이었다. 그러나 「朴氏傳」의 박씨는 대리인을 통해 전쟁을 해결하는 간접적 해결방식의 형상을 보였다. 여성영웅들은 직접적 해결방식과 간접적 해결방식을 보였다.

또 한 가지 유사점은 여성영웅들이 남장을 하고 전쟁에 출전한 후 정체가 밝혀지면서 일어나는 형상이다. 「朴氏傳」의 박씨는 남성이라는 대리인을 통해 간접적 해결방식을 사용하지만, 결국은 그 해결이 여성에서 출발하였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고, 「洪桂月傳」의 홍계월은 타인에 의해 자신의 정체가 밝혀지게 된다. 그리고 「方翰林傳」의 방관주는 여성의 삶을 거부하여 천자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남성으로 생을 마감하게 된다. 『玉樓夢』의 강남홍은 스스로 천자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게 된다. 이렇듯 여성영웅들의 정체가 밝혀지면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장군으로서 인정받고 직책까지 얻게 된다는 것이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도 여성영웅들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朴氏傳」·「洪桂月傳」·「方翰林傳」·『玉樓夢』의 여성영웅들은 무예를 배우는 과정에서 차이점을 보였다. 「朴氏傳」의 박씨는 천상계에서 내려 온 여성으로 예지력과 도술 능력이 선척적으로 타고났으며, 「洪桂月傳」의 홍계월은 여성임을 숨긴 채 남성의 모습으로 곽도사에게 용병지계와 술법을 배우며 터득하게 된다. 「方翰林傳」의 방관주는 병서를 읽고 무예를 스스로 읽히며 터득하였고, 『玉樓夢』의 강남홍은 백운도사에게 자신을 지키는 수단으로 사용하라는 말에 의해 용병지계와 술법을 배우며 터득하게 된다. 박씨를 제외한 여성영웅들은 후천적으로 무예를 습득하는 형상을 보였다.

또 한 가지 차이점은 여성영웅들의 전술 지략과 협상 능력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朴氏傳」의 박씨는 예지력으로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견하여 대비책을 마련하고, 대리인을 통해 항복을 요구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洪桂月傳」의 홍계월은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여 받아들이지 않으면 냉철하게 처단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方翰林傳」의 방관주는 격서를 통해서 적에서 항복을 요청하고, 싸움의 승패에 있어서도 협상을 하여 설욕을 안겨주지 않는 방식을 사용하고, 『玉樓夢』의 강남홍은 전쟁에서 승리할 대책을 마련하고, 적에게도 항복을 요청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여성영웅들은 전술 지략과 협상 능력에서 다른 방식의 형상을 보였다.

다음으로 가정에서의 여성 형상을 고찰하였다. 여성 형상을 크게 애정의 조건과 부부관계, 여성의 正體性 이 두 가지 기준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유사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애정의 조건과 부부관계에서 「朴氏傳」·「洪桂月傳」·「方翰林傳」·『玉樓夢』의 여성영웅들이 장애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朴氏傳」의 박씨는 '추녀', 「洪桂月傳」의 홍계월은 '남성보다 우월한 여성', 「方翰林傳」의 방관주는 '동성결혼', 『玉樓夢』의 강남홍은 '첩'이라는 장애요소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장애요소들은 부부관계를 지속하게 되면서 극복하게 된다. 「朴氏傳」의 박씨는 추녀의 이유로 단절되었던 관계가 절세미인으로 바뀌면서 완성되고, 「洪桂月傳」의 홍계월은 남장여성으로 남성과의 상하관계에서 단절되었던 관계가 주체성을 찾으면서 완성되었다. 그러나 「方翰林傳」의 방관주는 남성의 삶을 버리지 못하고, 동성결혼을 선택하여 부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미완성된 모습을 보였다. 『玉樓夢』의 강남홍은 첩이라는 장애요소가 있었지만, 애정과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완성된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장애요소를 통해 박씨와 홍계월은 미완성에서 완성, 방관주는 지속적 미완성, 강남홍은 지속적 완성의 형상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도 여성영웅들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朴氏傳」·「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洪桂月傳」·「方翰林傳」·『玉樓夢』의 결연과정을 크게 他意에 의한 결연과 自意에 의한 결연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 두 가지의 결연과정에서 그 형상이 모두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朴氏傳」의 박씨는 부모에 의한 결연, 「洪桂月傳」의 홍계월은 천자에 의한 중매 결연, 「方翰林傳」의 방관주는 부모에 의해 이루어진 만남이지만, 서로를 선택하며 결연하게 되고, 『玉樓夢』의 강남홍은 남녀 당사자 간의 애정으로 인해 결연하게 된다. 박씨와 홍계월은 他意에 의한 결연이며, 방관주와 강남홍은 自意에 의한 결연으로 부부관계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또 한 가지 차이점은 남성의 역할에 익숙한 여성이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洪桂月傳」의 홍계월과 「方翰林傳」의 방관주는 남성의 역할과 여성의 역할에서 정체성 혼란을 느꼈다. 「洪桂月傳」의 홍계월은 남편인 보국의 애첩 영춘을 살해하고, 전쟁의 참여로 인하여 주체성에 혼란을 느꼈다. 그러나 천자에게 여성의 삶과 도리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밝히며,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方翰林傳」의 방관주는 후사를 이을 수 없는 생물학적 性과 남성의 삶을 유지하고 싶은 사회학적 性으로 인해 자신의 주체성에 혼란을 느꼈다. 그러나 자신의 주체성을 찾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천자에게 밝히고 죽음으로써 남성의 삶을 끝까지 지켰다. 「洪桂月傳」의 홍계월은 가정에서 여성의 삶을 배우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方翰林傳」의 방관주는 남성의 삶을 포기하지 못하고 죽음을 선택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않으려했다. 『玉樓夢』의 강남홍은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기 보단, 양창곡에 대한 사랑이 매우 크고 간절하여 그의 곁은 지키고 싶은 마음에서 남장여성을 지속하였다. 『玉樓夢』의 강남홍과 「朴氏傳」의 박씨는 정체성 혼란을 겪지 않았으며, 오히려 가정에서 여성의 역할에 충실하였다.

지금까지 『玉樓夢』·「朴氏傳」·「洪桂月傳」·「方翰林傳」 네 작품을 비교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비교는 『玉樓夢』의 강남홍만이 지닌 여성성과 영웅성에 대해 알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강남홍의 영웅성과 여성성은 다른 여성영웅의 모든 면을 부각시켜 놓은 가장 이상적인 인물로 형상화됨을 알 수 있었다. 본고의 연구에서는 여성영웅소설의 제한된 작품으로 인하여 여성영웅소설의 전체를 고찰하지 못했다. 본고의 기초 작업을 바탕으로 하여 좀 더 넓은 범위의 여성영웅소설에 대한 고찰을 후속 과제로 삼는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참 고 문 헌

자료

김기현 역주, 「박씨전」, 고대본 『한국고전문학전집』15,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5.

남영로, 『玉樓夢』, 활자본 『고전소설전집』6, 동국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77.

저서

구인환, 『홍계월전』, 신원문화사, 2004.

김풍기 옮김, 『옥루몽』(전5권), 그린비, 2006.

서대석, 『군담소설의 구조와 배경』,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5.

서대석, 「영웅소설의 전개와 변모」, 『고소설사의 제 문제』, 집문당, 1993.

이용주 옮김, 『사랑의 중국 문명사』, 이학사, 2004.

장시광 옮김, 『방한림전』, 이담북스, 2010.

정병헌・이유경 엮음, 「洪桂月傳」, 『한국의 여성영웅소설』, 태학사, 2000.

조혜란, 『옛 소설에 빠지다』, 마음산책, 2009.

논문

곽정식, 「<박씨전>에 나타난 여성의 성격과 한계」, 『국어국문학』 제126집, 국어국문학회, 2000.

김명신, 「<好逑傳>과 <박씨전>의 여성영웅 연구」, 『중국소설논총』 제29집, 한국중국소설학회, 2009.

김미령, 「<홍계월전>의 여성의식 고찰」, 『한국언어문학』 제63집, 한국언어문학회, 2007.

김정녀, 「<방한림전>의 두 여성이 선택한 삶과 작품의 지향」, 『반교어문연구』 제21집, 반교어문학회, 2006.

김진영, 「<강남홍전>의 연구」, 『語文硏究』 제32집, 1999.

김혜정, 「<방한림전>연구 - 여성영웅소설의 변모 양상과 '女-女결연'의 소설적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전통을 중심으로」,『동양고전연구』 제20집, 동양고전학회, 2004.

신향화,「<옥루몽> 소고 - 강남홍 인물 분석을 중심으로」,『한국문예비평연구』 제30집, 2009.

양혜란,「고소설에 나타난 조선조 후기사회의 性차별의식 고찰 - <方翰林傳>을 중심으로」,『한국고전연구』 통권4집, 한국고전연구학회, 1998.

윤분희,「<박씨전>의 여성 여웅성 연구 - 활자본 <박씨부인전>을 중심으로」,『한국민족문화』18,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1.

이병직,「<옥루몽>의 작품 구조와 대중성」,『國語國文學』 제31집, 1994.

이유경,「고소설의 전쟁 소재와 여성영웅 형상」,『여성문학연구』 제10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3.

이윤경,「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남장의 특징과 의미」,『돈암어문학』 제13집, 돈암어문학회, 2000.

이지하,「19세기 한문장편소설의 여성형상화와 그 의미」,『國語國文學』 제149집, 2008.

장시광,「<방한림전>에 나타난 동성결혼의 의미」,『국문학연구』 제6호, 국어국문학회, 2001.

전이정,「여성영웅소설연구 : 서사 단위와 구성 원리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정진숙,「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여성 인물의 사회적·이념적 의미 연구 : <박씨전>, <홍계월전>, <방한림전>에 나타난 여성의식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조은희,「<홍계월전>에 나타난 여성의식」,『우리말글』 제22집, 우리말글학회, 2001.

조혜란,「여성, 전쟁, 기억 그리고 <박씨전>」,『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9집, 2004.

최지연,「<玉樓夢>의 여성 인물 형상화와 그 의미」,『한국고전연구』 제10집, 2004.

Collection @ chosun